

6.15주간

주체91(2002)

6.15Weekly

제29호 (1월 4일~1월10일)

2002년 민족민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새해공동사설 학습

노작 - 반동적 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29호 (1.4~1.10)





반동적 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북조선민전중앙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한 연설
1948년 3월 9일



여러분!

올해 2월에 ≪유엔소총회≫는 미국정부의 강요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이른바 ≪전민족적 조선정부≫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은 미국무장관 마샬이 내놓은 미국결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의하면 남조선단독정부의 선거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감독 밑에서 실시하며 그 선거규정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이 비준한 다음에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소총회≫의 이 비법적 결정은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짓밟고 우리 조국을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독립을 반대하는 ≪유엔소총회≫ 의 결정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에 의하여 꾸며진 이러한 비 민주주의적 결정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친미파,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같은 온갖 반동분자들의 음흉한 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가장 격렬한 반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민주주의적 조선통일정부를 세울 데 대한 모스크바회의 결정의 실행을 누가 어떻게 파탄시켰는가?

1945년 12월 27일에 채택된 소, 미, 영 3국 외상 모스크바회의의 결정은 조선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모스크바3국외상회의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발전하게 하며 오랫동안에 걸친 일본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빨리 청산할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열린 군중대회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내외에 시위하였습니다. 남북조선의 모든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성명 하였습니다.

오직 한줌도 못되는 반동정당들과 그 매국적 우두머리들만이 남조선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반동분자들은 조선이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들입니다.

조선을 예속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벌써 모스크바3상회의 때에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정부는 그때에 조선을 신탁통치 밑에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미제의 계획에 의하면 조선은 소, 미, 영, 중 4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의 명의로 활동하는 어떤 최고총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이러한 ≪관리≫를 5년 동안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또 5년 동안 연장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제안은 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후견시기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조선정부를 세울 데 대하여서는 전혀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련 측에서는 미국제안을 반대하여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를 세우자는 의견을 내놓고 반드시 이러한 임시정부의 참가 밑에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독립국가의 수립에 대하여 원조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3상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소련제안이 기본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 조국의 앞날의 운명과 관련된 최근사변들을 더 똑똑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다른 두 노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해 동안 미제는 자기가 서명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태공 하였습니다. 소미공동위원회사업을 진행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국정부가 약속한 것은 한갖 기만적 책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조선인민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조선정부를 세울 데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표는 언제나 이미 채택한 결정을 거부하면서 비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우세를 차지하는 반동적 정부를 세우는 것밖에는 통일정부를 세우는 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주장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민대중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탄압하여 왔습니다.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해산 당하거나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를 세울 데 대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여 파탄되었습니다. 미제는 소미공동위원회사업을 이렇게 지연시켰으며 파탄시켰습니다.

소련대표는 조선인민의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방해하며 지연시키는 장애물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련은 언제나 약소인민을 존중히 하였으며 또 존중히 하고 있으며 그들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하여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소련대표단은 조선에서 소미 양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에서만 동맹국의 원조와 참가 없이 조선사람 자신이 정부를 세울 가능성을 조선인민에게 줄 수 있다고 인정한다. 만약 미국대표단이 1948년 초에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제의에 찬동한다면 소련군대는 미국군대와 동시에 조선에서 철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소련대표단은 성명 하는 바이다.≫ 조선문제를 가장 순조롭게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풀 수 있게 하는 이 공명정대한 제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의 이 정당한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미국정부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실행을 파탄시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의 토의에 넘겨놓았습니다.

미국놈들은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서명한 포츠담협정을 어기고 독일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노리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파탄시키고 조선에서 소미양군을 동시에 철거시킬 데 대한 소련의 제안을 거부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조선인민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통일된 조선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정부의 흉책을 남김없이 폭로하여 주는 것입니다.



2. 미제와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문제의 토의에 참가할 조선인민의 대표를 유엔에 초청할 데 대한 소련대표단의 옳은 제의는 미국대표단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유엔에서 여러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그 민족대표를 참가시키지 않고 토의된 것은 조선문제의 토의가 처음입니다. 미국은 유엔총회가 조선인민의 의사를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은 조선인민의 대표가 참가함이 없이 제멋대로 채택되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인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미국은 유엔총회에 조선인민의 대표를 참가시키지 말자고 주장하였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미군정통치 밑에서 경찰, 테러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무법천지의 남조선형편이 세상에 드러날가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제의 통치가 두 해 반 계속되는 동안에 남조선에서는 아무러한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통화팽창과 대중적 실업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생활은 참을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조선인민의 버림을 받은 한줌도 못되는 반동분자들의 활동을 백방으로 지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남조선민주역량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저명한 활동가들을 살해하는 파쇼단체들의 테러활동을 장려하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은 전체 조선인민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소미 양국 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억제되고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억압받고 있으며 그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구실 밑에 체포 투옥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조선인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한 미국대표단은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에 우리 인민의 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한 것입니다.

남북조선에서 소미양군이 동시에 철거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조선인민 자체에게 맡기자는 것을 소미 양국 정부에 제의한 소련대표단의 결의안은 미국의 책동으로 유엔총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 대표단들은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데 관한 소련대표단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조선에서 점령정책을 계속 실시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앞으로 정부선거에 다른 나라의 간섭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벗들의 이 옳은 주장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불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대표단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거수 기를 발동하여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자는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이른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창설에 관한 결정을 억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위원단≫의 ≪사명≫이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숨기려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노골적인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은 미군정에 의지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여 민족의 운명보다도 외국비호자들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매국노들을 정부의 성원으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창설은 비법적이며 민족자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따라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허수아비기관이며 그것은 조선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서울에 들어오자 북조선인민들 뿐 아니라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격분의 파도가 일어난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남조선의 반동분자들과 그의 비호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여론이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사업을 지지하는 듯이 가장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하였으나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인민들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서울에 오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중은 파업을 선언하고 시위를 단행하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흉책을 견결히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남조선미군정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식량배급을 중지함으로써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꺾으려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정과 남조선경찰은 수많은 민주주의적 활동가들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이 줄여서 낸 자료에 의하더라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이 서울에 들어온 첫 날에 벌써 400여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올해 1월 30일부 ≪독립신보≫에 의하면 남조선농민동맹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날 조선인민은 그가 갈망하는 남북통일정부수립에 의한 민주독립의 길이 오직 양군의 즉시 철퇴로써 그들의 간섭 없이 우리 인민 자신의 손으로 자기 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소위 유엔의 결의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사업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 땅에서 물러 나가주기를 남조선 1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이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과 더불어 이 땅을 모든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결사코 수호할 것이며 남북을 통일한 자주독립을 전취할 때까지 싸울 것을 성명 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조선민주여성동맹은 ≪우리는 양군철퇴 후에 있을 외국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자유선거 외에 어떠한 다른 선거도 절대 거부할 것이다. 유엔결정이 조선문제해결을 지연시키며 조선인민이 절대 반대하는 국토양단, 민족분열, 철병지연, 예속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선인민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 조선여성 및 전체 인민과 더불어 즉시 철병으로써 정부수립을 인민들의 손에 맡길 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인민은 어디까지나 완전독립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라고 성명 하였습니다.

남조선민주주의애국청년동맹, 재일조선인연맹과 그밖에 많은 단체들도 조선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강경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에이피통신에 의하면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반대하는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와 시위에 대처하여 미군은 자기의 무장을 미친 듯이 강화하였습니다. 경찰과 시위자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로 말미암아 거의 100명의 애국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군정당국과 남조선반동분자들은 총칼의 비호 밑에 ≪정부≫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



은 ≪유엔임시조선위원단≫으로 하여금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미제는 새로운 책동으로서 이른바 ≪유엔소총회≫에서 또다시 비법적 결정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소총회≫는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유엔소총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 조선문제해결의 서로 다른 두 노선이 아주 명백하게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선은 조선을 인공적으로 갈라놓으며 유엔의 간판 밑에 그들에게 유리한 반동정부를 세우며 남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는 침략노선입니다.

소련의 노선은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바라는 옳은 노선이며 하루바삐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모두 철거시키고 나라를 통일하며 조선에 참다운 통일적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노선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이 둘째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3. 조선은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대한 첫 반향은 조선인민이 결단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비호 밑에 세워질 허수아비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찬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유엔소총회≫의 결정은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기 상전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한줌도 못되는 매국적 반동분자 이승만, 김성수 도당에게만 이로운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익진영 안에서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간판 밑에 우리 민족의 통일과 독립을 방해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사실입니다. 이른바 ≪남조선입법의원≫의 이전 의원이었던 김원용이 미국기자들과의 회견석상에서 한 최근의 연설은 이러한 것을 잘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김원용은 남조선미군정을 준열하게 비판하고 미국은 ≪남조선을 경찰국가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미국은 조선인민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유엔이 현재 남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그러한 선거는 어떠한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공정한 또는 자유스러운 선거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의 난폭한 간섭 밑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선거≫는 소수의 극우익반동분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조선의 반동분자들은 인민들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할 조그마한 권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남조선에 파쑈독재를 세우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동적 출판물들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야심을 이미 오래전부터 감추지 않았습니다. 례컨대 미국의 허스트계 신문 ≪뉴욕 져널 앤드 아메리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무성으로부터 입수한 권위 있는 보고를 근거로 하여 미국의 일부 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속심에 대하여 ≪38선 이북에 놓여있는 조선의 절반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획득하려는 기도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될 남조선공화국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의도는 조선을 분열시키며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염원을 억압하며 우리 민족을 모독하며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다시 들 씌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의도와 그것을 실현할 가능성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 밑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삼천만 조선인민은 결코 또다시 망국노예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체험하였으며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민주개혁의 혜택을 직접 입고 있는 북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결코 빼앗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학대받는 남조선동포들은 벌써 가면을 쓴 미제국주의자들의 속심을 알게 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조선인민의 대표를 참가시키지 않고 또 조선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참작하지 않고 꾸며진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반동분자들은 지금 ≪선거≫라는 희극을 연출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반동분자들로써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른바 ≪자유로운 선거≫가 어떻게 실시되리라는 것은 지금 이 ≪선거≫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남조선경찰이 총동원되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군정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선거를 탄압하던 악랄한 수법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소생하는 길은 오직 하나이니 그것은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원칙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써 전 조선최고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선거된 진정한 인민의 최고입법기관에서 헌법을 승인하고 나라를 융성 발전시키며 인민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인민정부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동시에 철거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과 모든 민주역량과 또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모든 애국적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 인민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적들의 교활한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호소합니다.

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이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굳게 뭉칠 것을 호소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하여 일어납시다.

우리 조국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 반동분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폭로합시다.

≪선거≫희극에 참가하지 말며 ≪선거≫를 배격하는 운동을 힘차게 벌입시다.

조선의 애국자들이여! 더욱 굳게 뭉쳐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나섭시다.

통일되고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조선 만세!

3. 공청의 산아들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청년사업은 내가 일생을 두고 심혈을 바쳐온 중대사의 하나이다. 나의 혁명활동이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길림 시절의 생활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나는 길림감옥에 구금되기 전에도 청년학생운동을 하였지만 감옥을 나온 후에도 지하활동의 형식으로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많이 하였다. 국제당 일군들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던 1930년 여름부터는 공청 길동지구 책임비서로 임명되어 공청사업을 하였다.

물론 왕청 시절에도 청년들과의 사업은 나의 군사 정치 활동에서 주선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고 있었다. 유격대의 정치사업을 책임진 지휘관이 군대 안의 공청사업을 지도하는 것은 직능에 맞는 응당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동만당 지도부와 왕청현당 일군들의 요구에 의하여 군대 밖의 공청사업에도 많은 시간을 투하하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당시는 당, 공청, 아동단을 가리켜 3대동맹이라고 하였는데 이 3대동맹에서 공청은 당 다음 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청을 가리켜 당의 교대자, 당의 후비대 또는 당의 저수지라고 불렀으며 그 사명과 역할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제2의 당이라고도 명명하였다.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전술적 문제들과 그 집행대책을 논의하는 당회의들에는 언제나 공청서기들이 연석으로 참가하였다. 동만당에서는 이런 회의를 가리켜 당단연석회의라고 하였다. 그런 회의들에서 공청서기들은 당원들과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까지 당당하게 행사하였다. 당원들이 없거나 당세가 미약한 고장들에서는 공청열성자들이 주동이 되어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남북만 진출을 끝마치고 간도에 도착한 후 나는 이광 별동대 공청서기 조동욱, 왕청현 공청서기 한재춘, 왕청현 공청조직부장 김중권 등을 통하여 동만지방 공청사업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요해했다.

그 당시 동만지방의 공청사업에서는 공청조직건설과 혁명발전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좌우경적 편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왕청지방 공청사업에서 제일 큰 애로로 제기된 것은 유능한 지도일군의 부족이었다.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이 눈부신 상승기를 걷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

맞게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처리할 만한 능력 있는 공청간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청원들의 대부분은 문맹자거나 국해 정도였고 쌀에 뉘만큼한 사람들만이 중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청년운동을 협소한 유격구역의 범위에서 제한시키고 청년사업을 노동자, 농민 계층의 청년 본위로 진행하면서 마치도 공청활동은 성분이 좋고 식견이 높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런 경향은 불피코 공청건설에서 관문주의를 낳게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공청조직의 순결성과 비밀보장의 미명하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이 구실 저 구실 붙여가면서 공청에 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무턱대고 배척하였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출신이 걸린다고 하면서 따돌렸고 소박한 노동청년들을 무식하다고 외면하였다.

공청에 가입하자면 적어도≪사회주의대의≫쯤은 통달해야 했고≪공산당선언≫이나≪임금노동과 자본≫과 같은 고전들도 읽고 분석할 줄 알아야 했다. 만일 심사 과정에≪공산당선언≫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공산당선언≫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청생활을 해!≫하고 까박을 붙이는 것이 통례였다.

대왕청의 어떤 청년은 소비에트정부에 소를 몰수당한 것이 흠으로 되어 공청가맹을 청원하였다가 부결당하였다. 부림소를 몰수당하는 정도의 집이면 자산가 출신이라는 것이고 소비에트의 수탈대상이 되었으니 가맹 적격자가 못된다는 것이다.

좌경관문주의자들은 지어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선봉대에서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해온 청년들까지도 공청조직에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좌경이 차단봉을 내리고 문을 굳게 닫아 맨 지역들에서는 100여 명을 망라한 군중단체 안에 공청원이 고작 3~4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동만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청지방에서는 공청대열을 확대하는 데서도 텃세가 셌다. 다른 현에서 아무리 조직생활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해당 조직이 발급한 이동문건이나 보증서가 없으면 왕청에 와서 공청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동녕현성에서 지하혁명활동을 하다가 군벌의 체포소동을 피해 왕청으로 온 전문진도 유격대의 재봉대에서 일을 잘하였지만 이동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적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군복을 해준 데 대한 답례 인사를 하려고 재봉대에 찾아간 나는 그가 무슨 일인지 몹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도 재봉대 출입을 여러 번 하였지만 전문진의 침울한 기색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그와 담화를 하였다. 전문진은 소심한 여자였지만 심중의 고충을 솔직하게 다 말했다. 그는 목적했던 새 고장에 와서 소망대로 유격대에 입대하였지만 공청조직이 자기를 받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외기러기처럼 늘 우울하게 살았다. 그의 고충이 조직문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나는 해당 일군들과 의논하여 그가 종전대로 공청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공청조직들에서는 동향, 동창, 친척, 친우 등의 안면정실관계를 타고 이색분자들과 불순분자들, 동요분자들만이 대열 내에 망탕 끼어들었다. 어떤 공청 일군들은 출신성분만을 절대화하던 나머지 머슴꾼 출신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간첩임무를 받고 유격구에 잠입한 불순분자들까지 공청에 받아들였다. 이런 좌우경의 틈바구니에서 혁명적 세련이 부족한 일부 공청원들은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구로 내려갔다.

공청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들은 적지 않은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하는 혁명운동을 경원시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유격대 내의 공청사업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을 항일의 깃발 아래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전선운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유격구의 공청사업에서 이와 같은 좌우경적 편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공청의 지도일군들이 조선혁명의 실정과 이익에 알맞은 옳은 조직건설노선을 가지지 못하고 고전의 요구를 교조적으로 적용하거나 남들의 경험을 통째로 직수입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유격구사업을 주관하는 지도일군들이 공청이 범하고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고 청년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도와 출로를 열심히 모색하고 있던 1933년 3월 소왕청 마촌에서는 공청일군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왕청지구 공청위원들, 아동국장들, 연길에서 온 청년대표들과 용정학생대표들(지하공작원)을 비롯한 30명 정도의 청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로는 김중권, 박현숙, 조동욱, 박길송, 이성일, 김범수, 최봉송 동무들을 들 수 있다.

공청일군회의를 회상할 때면 어째서인지 회의 전기간 유달리 영채 도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줄곧 지켜보던 박길송의 눈동자가 삼삼히 떠오르곤 한다. 내가 박길송의 눈에 대해 특별히 인상 깊게 회상하게 되는 것은 훗날 그가 그 영롱한 두 눈의 한 쪽을 관동군 부대와의 조우전에서 잃어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북만의 뛰어난 유격대장으로서 최후를 마친 박길송이 1933년 당시에는 특별한 공청직위도 없이 모범공청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했던 것 같다.

회의를 마감짓는 날 현공청 일군들과 대표들은 나에게 연설을 청탁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길림에서도 공청활동을 많이 하고 간도지방에 와서도 길동지구 공청 책임비서라는 간판을 가지고 청년들과의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참고할 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견해나 들어보자고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일치한 요구에 따라 공청단체들 앞에 나선 과업을 두고 길다란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 중의 적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조동욱이 자상하게 회고하였다.

동서고금의 철학자, 정치가, 교육자들은 예외없이 사회개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세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두고 많은 고견들을 내놓았다. 맑스주의고전가들은 일치하게 청년들을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 보았다. 고대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국가의 장래운명은 청년에 대한 교육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유물론 철학가이든 관념론 철학가이든, 동양의 학자이든 서양의 학자이든 미래의 운명으로 되는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그 세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대동소이하게 평가하였다.

청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물론 그들과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의 지위를 혁명의 교량자나 후비대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선행 고전가들과 이론가들은 청년들을 전세대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도와 교양을 받으며 보조적으로 혁명을 해 나가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청년들을 보조적인 역량 이상의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조선혁명이 걸어온 노정과 실정을 볼 때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았다.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사회적 운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

한 선봉대이고 주력부대이며 미래의 운명까지도 걸머진 골간부대이다. 이것은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주장이었다. 80고령에 이른 지금에 와서도 나는 혁명의 전위로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혁명운동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지 않고 전세대에만 의거하여 그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들의 뒤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세월을 보냈더라면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낡은 사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항일유격대도 창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민족의 선봉에 서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 전반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 역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감옥도, 죽음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사들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3.1인민봉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선봉결사대로 나섰고 6.10만세시위운동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 때에도 주력으로 등장하여 애국적인 구호들을 고창하였다.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도 그 주체는 청년학생들이었다. 그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는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대오를 짜고 노도와 같이 거리를 누볐으며 총검을 박차고 항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중엽부터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항일혁명사의 새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나의 청춘 시절이 공청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 권들에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은 나의 청년기와 일치하였다. 우리는 그 나이에 연대도 이끌고 사단도 지휘하고 군도 영솔하였다. 한때 우리 인민들 속에는 나를 백발노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던 당시의 나의 나이는 34살도 못되었다.

유격전쟁은 옛날의 군사들처럼 서로 대치되어 영채를 치고 북을 두드리면서 장수들이 필마단창으로 접전하거나 높은 성벽에 의지하여 화살을 날리는 그런 구식 싸움도 아니며 발달된 군수기재를 이용하여 전화나 무선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신식 싸움도 아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50~70대의 노장군들도 능히 전투를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유격전쟁에서는 전사나 지휘관이나 할 것 없이 동빙한설의 쓴맛을 다같이 맛보아야 한다.

지휘관들도 때로는 기관총을 잡아야 하며 정황이 요구하면 총창을 꼬나들고 백병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건강한 육체와 건실한 정신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었다.

항일혁명에 참가한 투사들은 거의 모두가 20대의 청년들이었다. 양정우는 32살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장으로 되었고 진한장은 27살부터 제3방면군 군장으로 활동하였다. 오중흡이 연대장의 중책을 지니고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29살의 꽃나이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청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한 투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청년세대를 혁명의 교량자, 혁명의 후비대라고만 평가하겠는가.

나의 이런 견해와 입장은 그날의 연설과 담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을 추진시키는 주력 중에서 기간적인 역량으로 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펼쳐보아도 사회 개조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의 전열에 내세운 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사업이다.

그런데 공청조직이 문을 딱 닫아걸고 청년군중을 등지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어떤 공청조직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우수한 청년들을 대열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관문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관순이 나이가 많아서 3.1이 낳은 영웅으로 민족사에 남아 있겠는가. 남이 장군도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자기들을 가리켜 대장부라 하겠는가고 하였다.

나이를 문제시하면서 10대의 열혈청년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공청조직을 청년조직으로가 아니라 장년조직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10년이나 20년쯤 도를 닦고 성인현자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공청이라면 그것이 무슨 청년들의 조직이겠는가.≫

다음으로 대표들의 흥미를 끈 것이 공청 일군들이 엄수해야 할 사업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이 항목에 들어가서도 많은 말을 하였다.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 세우자면 공청사업을 담당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공청원이 총 5발을 쏘았는데 적을 한 놈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자. 유격대에서는 탄알 한 알에 원쑤 한 놈이라는 구호가 통용되고 있는데 5발 쏘아서 한 놈도 잡지 못했으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가령 이런 결함을 범한 공청원에게 해당 조직에서 비판을 주고 조직문제를 보았다면 이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우선 과오를 범했다면 여러 각도에서 요해해야 한다. 측면으로도 요해하고 후면으로도 요해해야 한다. 무기성능이 좋지 못한가? 조성, 조문이 틀리지 않았는가? 총탁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살그머니 당기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방아쇠를 당길 때 숨조절을 잘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생리적 약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알아보아야 한다. 근시인가? 원시인가? 아니면 난시인가? 그리고 대담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비겁한 데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여러모로 따져보고 문제를 취급해야지 일률적으로 사상이 나쁘다고 보고 사상투쟁만 하면 안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결함에 대해서는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판하되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폭로하는 식으로 욕설하고 모욕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날 회의에서 공청대오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강화하고 선전선동 교양사업을 개선하는 문제, 상호비판, 자기비판을 성실히 하는 문제, 아동단을 공청후비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과거 애국청년들의 투쟁에서 그 우수한 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청사업의 전반 분야를 포괄하여 연설도 하고 담화도 하였다.

그 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청 지도일군들이 항상 군중 속에서 살며 사업에서는 대중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고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청일군회의가 있은 후 공청 지도일군들의 일본새에서는 혁신이 일어났다. 관료주의와 관문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에 얽매여 있던 공청조직들은 생가발랄한 산 조직으로 되어 청년대중 속에 깊이 침투했다.

…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는 분

구국의 소리, 2002년 새해특집방송



오늘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은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가리지 않고 힘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북에 대해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가 위력하기 때문이라 하겠죠.

네,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는 분≫ 윤정원씨, 유진명씨 모시고 김현규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현규 : 안녕들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유진명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오늘 세계 진보적 인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정상에 이르게 하신 이북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두다 찬탄해 마지않고 있는데요. 그건 선군정치를 펼치는 여기에 바로 민족의 내일이 있고 나라가 융성번영하는 길이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인상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어느 분 먼저 좋은 말씀 주시죠.
윤정원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이북의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 그리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는 바로 영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북은 영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로 해서 존엄높은 나라로 됐습니다. 이북은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대국으로 그 위상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막강한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건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나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지도력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진명 : 무릇 위인은 역사를 세우고 시대를 이끈다고 했어요. 위대한 역사는 절세위인을 모신 나라와 민족만이 창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대한 역사 여기에는 반드시 위인의 선견지명과 천재적 예지, 위대한 구상과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 나라 민중의 열정과 뜨거운 숨결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예요. 오늘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 이북에서 펼쳐지고 있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거대한 활력과 견인력이 그걸 확증해 주죠.
김현규 : 그렇죠. 우리 민중과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20세기 90년대를 전후한 시기 이북의 현실을 주시해오면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니신 위인적 품격과 그분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견인력과 활력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죠.
윤정원 : 그렇죠. 돌이켜보면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은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가 좌절된 걸 기화로 해서 이북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력과 군사적인 위협, 경제적 봉쇄책동을 악랄하게 감행을 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북에는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정말 남들같으면 단하루도 견뎌내지 못할 그런 최악의 사태였잖아요. 그때 이북이 겪었던 시련과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이를 주시해보던 세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 이북이 세계의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과연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겠느냐 이렇게 모두들 우려를 표시했죠. 그리고 우리 이남 민중들도 그때 이북이 당하는 격난을 보고 얼마나 불안과 초조감을 표시했습니까.
유진명 : 조성된 그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건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는 그런 중대사였죠. 이 책임적인 **은 오직 탁월한 위인만이 실현할수 있었는데요. 그 위인은 바로 백두의 영장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이셨죠. 그 어떤 강풍에도 드놀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하를 한품에 안은 넓은 품, 백두산의 슬기와 용맹을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영장은 바로 **김정일**영도자님이셨는데요. 그분께서는 백두의 총대사상을 구현한 독특한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로 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셨어요.
김현규 :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회유기만술책앞에서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혀들지 않는 그런 철의 의지와 신념을 지니시고 존엄높은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담력앞에서 온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했죠.
윤정원 : 돌이켜보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1993년이죠. 미국과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해서 이북에 대한 강제적인 사찰과 제재가 목전의 현실로 정세가 조성됐을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세계면전에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셨어요. 그로부터 나흘만에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거든요. 이 중대조치에 접한 세계는 또다시 놀라움과 찬탄으로 들끓었죠. 어떻게 크지 않은 나라가 그것도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상황에서 단신으로 세계의 유일초대국인 미국과 창창맞설수 있겠느냐고 얼마나 격찬했어요.

유진명 :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탁월한 선군영도로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떨치신 사례는 그것만이 아니예요. 주한미군기가 휴전선 북쪽 상공에 침범했을땐 단 한방에 격추해버리고 사죄를 받아냈죠.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위에 없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북침전쟁열에 들뜬 미호전계층들에게 철퇴를 내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이 추상같은 성명은 그대로 **김정일**영도자님의 멸적의 기상이였고 선군정치의 활력을 과시한 쾌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국제***을 확약한 북미공동코뮤니케에 서명했던 것이고 국교도 없는 평양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진 국무부장관을 파해서 ***을 *** 않았어요.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고립압살책동하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떨쳐나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결실이고 위대한 승리죠. 그러기에 워싱턴과 서방의 군사정치가들은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고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타격이 무자비한 ***이다, **김정일**지도자의 대활력은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특출한 영장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현규 : 그렇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수호해 나가게 하는 새로운 정치방식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북이 그 어떤 침략자도 격멸소탕할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군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그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건 그 기저에 그분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활력과 정치실력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죠.

윤정원 : 물론이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오늘의 현실에 걸맞게 심화발전시키셔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나가십니다. 선군정치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이고 위력한 사회주의의 정치방식이예요. 더욱이 선군정치는 오늘과 같은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 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984년부터 280여차례에 군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면서 수백개***지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무려 12만9900여리에 달하는 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어요. 이건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해 나가시려는 그분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 아닐수 없는 겁니다.



유진명 : 오늘 이북이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쾌승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있고 그 어려운 난국속에서도 ≪광명성1호≫와 같은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기술력으로 성공리에 발사했고 경제를 활성화해서 부흥강국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현실이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사람들을 더욱 감탄시킨 건 그분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애국애족의 결단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인 남북수뇌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된 건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가져온 **라는거죠.

윤정원 : 세계에는 200여개를 헤아리는 대소국가들이 있죠. 그렇지만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그처럼 높이 떨치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이북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나가는 이북을 없애버리려고 악랄한 반북공세를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지만 이북은 오히려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더욱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침야욕을 노골화하고 반북강경노선을 계속 추구하면서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반북강경노선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의 위력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북을 압살하고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거세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지만 수세에 빠진 건 이북이 아니라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세력들이예요.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세계의 뒷전으로 밀려난게 아니라 오히려 연속 쾌승을 이룩하고 국제정치무대의 중심에 우뚝 솟아 인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주도해나가는 사령탑으로, 존엄높은 나라로 그 위상을 세계만방에 더욱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 그렇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를 떠나서는 오늘의 이북의 전진과 존엄 그리고 권위에 대해 생각할수 없죠. 그건 오늘 국제사회에 비낀 이북의 실상과 권위를 통해서 더 잘 실감하게 되는거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북은 영토와 인구수로 보나 그리 크지 않은 나라죠. 그렇지만 높은 국제적 권위를 지니고 시대의 앞장에서 전진하고 있고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건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빛내나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영도력과 정치활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건데요. 그러기에 세계각국의 언론매체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이북을 사회주의의 보루로 다지신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실력에 대해서 찬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열화와 같은 경모심을 과시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장인 한반도에서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있는 건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에 있다면서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중심축이 이북이라는 걸 이걸 일치하게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방의 언론들은 세계의 이목은 걸출한 정치지도력으로 세계 정치를 관장해 나가시는 **김정일**지도자에게로 쏠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던 거죠.

유진명 :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활력과 정력은 그것이 체현하고 있는 세계적인 견인력으로해서 오늘 국제정치무대에서 이북의 목소리는 천만금의 무게를 가지고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정치무대에서 미치는 파장은 대단히 크죠. 이를 두고 세계는 이북은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시대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북을 고립질식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고 역사의 오류라고 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죠. 이북의 현실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권위를 최정상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걸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는데요. 자주와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과 같으신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건 7천만 온 겨레의 최대의 영광이고 끝없는 행복입니다.

김현규 : 그렇죠. 바로 그런 무상의 영광과 긍지를 안고 살고 있기에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융성번영할 통일조국의 내일을 내다보고 있고 이외에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그런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영수로 모신 민족의 일원이 된 자긍심 해가 바뀌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가슴 뜨겁게 느끼는 우리 민중인데요. 우리 모두 장군님의 통일의지를 받들고 통일위업 성취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정국진단

구국의 소리, 2002년 새해특집방송

누구나 새해의 제일 관심사는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하는 문제라 하겠는데요. 그럼 순탄하지 않을 올해의 정국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오일씨, 윤정원씨 모시고 박진수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수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복많이 받으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복많이 받으세요.
박진수 : 새천년에 두번째 해를 맞으면서 정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국민들은 큰 기대와 함께 우려감도 없지 않아서 착잡한 심정인데요. 올해엔 대선과 지방선거의 양대선거가 있게 되구요. 그리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가 있은지 두번째 해를 맞는 시점이어서 이 해 정국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좀 주실까요.
윤정원 : 매해 정초마다 진단해보곤 하는 정국전망이지만 올해 정국은 그 어느해 비할바 없이 매우 복잡다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펼쳐질 정국에서 명백하게 그려지는 건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사대매국, 파쇼, 남북대결을 추구하는 반동세력간의 대결이 더욱 격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첨예한 정국속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보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데 반해 미국의 식민지통치위기가 벼랑끝에 이르고 반통일세력들의 처지가 서산낙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진수 :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요. 정국전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오 일 :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국전망에서 주목할건 미국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지금까지 식민지 이 땅의 정국이 미국에 의해 **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 **폭압책동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거머쥐고 한반도전체를 병탄하려는 건 미국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반도전략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시정권출범후 이 침략적인 한반도전략실현을 위한 책동이 그 더 노골화되고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하면 올해들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이 더 교활하고 악랄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원 :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파열구를 냈거든요. 6.15공동선언발표로 미국지배층들은 지금도 안절부절못하고 있잖아요.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국민들의 통일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이걸 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에도 남북관계를 종전의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기 위해서 대북강경일변도정책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건 부시정권이 북핵사찰의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오고 북에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는 등 각종 명목으로 공공연히 위협해 나서고 있는데서 찾아볼수 있겠어요. 한편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한국에 더많은 군사장비를 끌어들이려하고 있고 올해에도 대규모의 한미합동공격연습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 그러니 올해 우리 국민들의 반미기운도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말씀이겠죠.
오 일 : 네, 그래요. 국민들의 대미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한 미군학살만행과 주한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를 통해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자, 살인자이고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걸 똑똑히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4.3제주도봉기자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지휘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어느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민들의 반미투쟁은 예년에 비할바 없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정원 : 올해 국민들의 반미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종전에는 주로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미집회나 시위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 재야단체들이 각종 반미투쟁단체들을 조직하고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투쟁형식에서도 주한미군기지와 주한미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근원을 뿌리째 들춰내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이전과 철수문제를 계기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철폐와 미군의 완전 철수문제를 들고 반미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진수 : 올해 정국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반민주적 폭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우익보수세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세력간에 대결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 일 : 올해 우익보수세력들의 발악적 공세가 거세지리라는 건 크게 두가지 의미로 볼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는 6.15공동선언발표 두해째가 된 올해 그 입지가 더욱 가련해지는 것과 관

련한 그런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정국과 관련한 공세라 할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6.15공동선언발표 후 국민들의 뜨거운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거센 분출로 우익보수세력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끈떨어진 **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는 국민들의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요구를 막아보려고 필사발악할 겁니다. 특히 올해 있게 될 16대 대선과 관련해 우익보수세력이 어느때보다 발악하리라고 봅니다. 우익보수세력은 무엇보다 대선에 사활을 걸고 파쇼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초부터 정권주도권장악책동에 광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익보수세력이 우익정권창출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세력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올해에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이에 반해서 이 땅의 애국적 민주세력의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출이 더욱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각계 애국적 민주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의 봄을 안아올수 없다는 것 이걸 폐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애국적 민주세력의 항거가 어느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대선은 우익보수세력에게 권력의 자리를 내주느냐 아니면 민주세력이 정권을 잡느냐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 아닙니까. 양자간의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민주애국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박진수 : 올해 정국에서 가장 주목되고 관심사로 되는 건 통일정국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올해 통일정국을 내다보면 불투명한 점도 없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옳은 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두번째해가 되는데요. 각계 민중은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지난 1년간동안에 실제 체험을 통해 느끼고 있어요. 말하자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서 통일의 문을 여는데서 걸림돌인 미국의 간섭과 분열책동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철폐, 해체하는 것과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철저히 매장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각계 민중의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세찬 격량을 일으키고 힘차게 벌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윤정원 : 반면에 반통일세력들의 움직임 또한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로 됐어요. 그들은 미국의 간섭책동에 추종해서 6.15공동선언을 거부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종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려고 발악할 것으로 예상이 돼거든요.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로 나섰던 홍순영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회담을 결렬시켰고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추태까지 보였거든요. 이 땅의 반통일세력은 주적론을 계속 고집하면서 남북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뒤집어엎으려고 더욱 광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익보수세력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으려고 아무리 책동을 해도 대하의 거센 흐름을 막지 못하듯이 6.15공동선언실현으로 나가는 민중과 겨레의 대행진을 절대 막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통일정국은 낙관적이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역사적인 해로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박진수 : 올해 정국을 관망해볼때 빠질수 없는 게 여야 사이의 그리고 당내부에서의 갈등과 모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올해 있게 될 지방선거과 대선을 계기로 여야간의 계싸움은 물론 당내 계파간 싸움이 치열해 지리라는 건 뻔하죠. 대선후보경선을 놓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부가 매우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여야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이에 비추어서 올해에는 사회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박진수 : 새해 정국전망을 종합해볼때 형언할수 없이 복잡다단하게 펼쳐지리라는 건 뻔합니다. 우익보수세력들, 반통일세력들이 어떻게 책동하건 정국을 주도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 각계 민중이기 때문에 자주와 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은 더욱 힘차게 벌어질 것이고 반동집단의 위기는 더한층 심화돼서 파멸이 촉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새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가기 위한 각계 애국민중 여러분들의 투쟁에서 알찬 열매가 맺어지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올해의 정국을 진단해 봤는데요. 민중 여러분들이 올해 대중운동의 중심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새해정국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노선일 / 구국전선 제464호 주체91(2002)년 1월 1일

새 세기의 첫해를 보내고 뜻깊은 대망의 새해 2002년을 맞는 우리는 올해 정국을 진단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를 조명해 본다.

새해 2002년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탄생 90돌이 되는 뜻깊은 역사적 해이다.

경사로운 새해에 전국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만고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높이 모실 경모의 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태양절을 민족과 인류의 최대 축제로 빛내일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영광빛날 새해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발표 두돌이 되는 해이다.

전국민은 새해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욱 드높여 6.15공동선언실천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자신감에 넘쳐있다.

새해는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해이다.

새해에 이 땅에서는 민족민주세력과 친미보수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견된다. 바로 연말에 있게 될 대선이 올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며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반동보수화되고 남북관계는 대결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새해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기본목표는 모든 합법적 투쟁공간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이 이 목표를 실현해야 사상과 이념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고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담보할 수 있으며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대선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반통일, 반민주보수우익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된다.

민주에 살고 통일에 살려는 이 땅의 전국민은 대선을 친미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는 정국전환의 역사적 판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해에 민족민주운동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기본권쟁취투쟁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들과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사상과 이념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통일논의와 애국적 단체들의 합법적 활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대중을 울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로파견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3권보장을 위한 대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농민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새해 민족민주운동의 기본 타격목표는 친미보수수구세력을 타도매장하는 것이다.

친미보수세력은 저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구시대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태만을 일삼고 있다.

사회민주화의 걸림돌인 이들을 제거함이 없이는 참민주정권도, 민족자주도, 조국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

전국민은 친미반동보수세력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려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은 미군철수투쟁, 반미투쟁과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은 민족민주운동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오늘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본연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북침전쟁반대, 미군기지철수, 미군기지 아파트건설반대, 미군유지비증가반대 등 반미투쟁을 늦출 수 없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인위적인 긴장상태를 조성시키고 6.15공동선언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도 미국이고 이 땅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저애하며 친미정권을 조작해 온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이 땅을 50여년동안이나 식민지로 강점하고 우리 민중과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화근이며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민족민주운동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 끝장을 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국보법≫철폐투쟁, 양심수석방운동 등 통일운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데로 지향시켜 새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새해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는 일치단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단합은 공동선언실현의 위력한 힘이며 사회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근본담보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연대공동투쟁으로 연합하고 단결하여 올해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새해 대중운동 어떻게 활성화할까

구국의 소리, 2002년 새해특집방송

지난해에 민중여러분들은 운동속에 새날을 맞고 운동속에 날을 보냈는데요. 그럼 올해의 대중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유진명씨, 김현규씨 모시고 김혜정씨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정 : 안녕하세요.
유진명 : 새해 축하합니다.
김현규 : 안녕하세요.
김혜정 :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설인사 드립니다.
2002년 뜻깊은 새해를 맞은 지금 각계 민중의 가슴마다에는 품어보는 희망도 크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제도 높을 줄 압니다. 그래서 새해에 민중의 지향과 요구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길 나누자고 자리 같이 했는데요. 유진명씨 먼저 말씀해주시죠.
유진명 : 새해를 맞은 지금 각계 민중의 투쟁각오는 높다고 봅니다. 새 세기 인류가 사회적 진보와 민족적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시대적 추이에 걸맞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민중생존권을 실현하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벗어던지고 사회의 자주화를 이룩하며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열망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새해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보다 가열차게 벌여나갈 마음다짐도 굳게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김현규 : 네, 그렇죠. 그래서 새해엔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실현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민중의 대중적 진출이 보다 적극화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 같은 현실은 대중운동단체들로 하여금 각계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해서 그들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려는 열망을 투쟁으로 분출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걸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걸 기대한다고 하겠죠.
김혜정 : 정말 이 해의 운동가들 앞에 제기된 과제가 아주 막중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럼 새해에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지난해 각계 민중의 대중운동결산에서 찾은 교훈적인 문제들과 결부해서 얘기 주셨으면 합니다.
유진명 : 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대중운동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봐지는거죠. 물론 대중운동단체들이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항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고 또 결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난해 대중운동을 전개하는데서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끝장을 볼때까지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지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예하면 지난해 노동운동에서 1, 2차 연대파업때 노동자들의 투쟁열의는 높고 기세충천했거든요. 이 기세를 놓치지 말고 정한 목표를 관철할때까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도록 했어야 할 것이였어요. 그런데 약간의 성과에 도취해가지고 도중하자해서 투쟁이 응분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데요. 지난해 학생운동이 종전보다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게 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이렇게 된 건 학생운동이 연초에 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불러 일으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대담하게 투쟁을 조직전개하기 보다는 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공안당국의 계획적이고 모략적인 탄압책동으로부터 한총련을 고수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만큼 일단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대오를 확충하고 적극적인 투쟁공세를 벌여나가야 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이밖에도 많은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새해에는 이같은 부족점들이 반드시 극복돼야 하겠죠. 그러자면 각계의 대중운동단체들의 역할을 한층 높여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 :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새해에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면 또한 운동가들이 투쟁전술을 잘 적용하



고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잘 이용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진명 : 옳으신 말씀입니다. 6.15공동선언발표로 이 땅에는 대중운동을 보다 활성화할수 있는 합법적 투쟁공간이 마련됐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걸맞게 각계의 대중운동단체들이 투쟁공간을 적극 이용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모를 박고 대중투쟁을 전개하게 된다면 각계 민중들속에서 민주화의 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반통일보수세력이 머리를 쳐들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의 민주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날아가 버릴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대중운동도 보다 힘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해 대중운동에서는 이런 점이 미약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김현규 : 그와는 좀 다른 얘긴데요. 일부 사람들속에서 6.15공동선언발표로 새롭게 적용된 정세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한데로부터 기분주의적인 돌출행동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수구보수세력과 공안당국에 탄압의 구실을 준건 물론이고 대중운동단체들의 **려는 경향도 없지 않았죠. 대중운동단체들은 여기에서 응분의 교훈을 찾고 새해에는 조성된 정세와 온갖 합법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전술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정 : 올해에 운동단체들이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면 또한 연대와 연합을 실현해서 연대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유진명 :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아시겠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대중운동은 민족자주와 민주민권, 조국통일과 민중생존권을 위한 운동이거든요. 대중운동단체들의 이름은 달라도 지향과 요구는 같아요. 이런 여건에서 운동단체들간에 연대하고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투쟁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대공동행동을 위한 노력들이 많았다고 생각돼요. 지난해의 경우를 살려서 이 해에는 연대공동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죠. 지난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저지와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공대위라든가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연대조직들이 나왔지만 조직결성에 그치고 연대공동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는데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공동단체를 결성하고 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조직하는 면에서도 부족했다는게 운동가들의 평인데요. 그러다보니 투쟁이 하나의 흐름으로 지향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응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폐단도 없지 않았죠.

김현규 : 운동단체들의 단합을 이루는 면에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에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본부가 결성됐지만 통일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의 자기의 주의주장을 고집해서 불협화음이 있었죠. 자기 주의주장을 접고 6.15공동선언이행이라는 대원칙에 모든 걸 복종시킨다면 단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런만큼 이 해에 운동단체들은 민주, 자주통일이라는 대전제 아래 연대와 단합을 이루고 연대공동투쟁을 벌이는데 깊은 관심과 응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 :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해에 운동단체들이 대중운동을 보다 활성화하자면 각계 민중속에서 의식화작업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의식화는 대중운동활성화와 운동승리의 천하지대본입니다. 때문에 운동단체들은 새로운 정세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대중의식화작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지난해의 경우에도 각계 민중의 투쟁을 보면 대중화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참가 인원이 몇백명정도에 불과한 때가 적지 않았죠. 이건 대중이 투쟁에 나설만큼 그렇게 의식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올해에 모든 대중운동단체들은 대중의식화작업에 배가의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 민중이 투철한 투쟁의식을 갖고 민주, 자주통일,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에 대중적으로 참가하도록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혜정 : 각계 운동단체들은 대중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올해를 민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큰 결실 이루어질 자랑찬 해로 돼야 할겁니다. 그럼 얘기 마치죠.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김혜정 :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적극화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단상에 높이 모시려는 각계 민중의 투쟁결의 들어봤습니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오늘 우리는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와 전 민족적환희속에 희망찬 새해 주체91(2002)년을 뜻 깊게 맞이한다.

지나온 력사가 영광스럽고 계승이 위대하며 전도가 양양한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새 시대 진군길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혁명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우리 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 보며 새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주체90(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력사의 해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불굴의 기세로 새 세기 첫해 전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20세기의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꿋꿋이 이어 져 온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위업이 변함없이 계승되여 나가고 있는것은 더 없는 긍지이다. 지난해의 투쟁은 21세기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영광의 세기로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 진 긍지 높은 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벌리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우리 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고 21세기 국제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혁명활동방식과 천재적인 령도실력은 세계를 격동시켰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을 백배로 높여 주었다.

지난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 펴난 긍지 높은 단결의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절히 그리며 어려운 시련을 과감히 헤쳐 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자나깨나 우러르며 고도의 자각성과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의 순결성과 우리 정치체제의 확고부동성이 힘 있게 과시되게 된것은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다.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였다.

여러해째 어려운 난관을 겪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가게 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새 세기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다. 21세기 첫해에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된것은 부강조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였다.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며 적들의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 버리였다. 세계도처에서 전횡과 강권행위를 일 삼는 제국주의자들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곧바른 길로 확신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진보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다.

새 세기 첫해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회주의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의 과시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결실이다.

오늘 세계정치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여 나가고 있다.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김정일**동지의 판단과 분석은 언제나 명철하였고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방략은 백발백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최전선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새 기상이 약동하게 되고 군민이 힘을 합

쳐 기적을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 지게 되였다. 선군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위업이 완성되는 21세기의 서막을 장엄하게 열어 놓으신것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 세기 첫해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휘날린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진군길에 떨쳐 나서고 있다.

새해 주체91(200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열망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주체사회주의의 시조이시며 건군의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들고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2002년을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는 영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우리 혁명은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 섰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 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높이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 없는 결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4대제일주의는 주체의 숨결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수령은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륭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인민의 넋으로 영원히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 엎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수령님 탄생 90돐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 있게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김정일동지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끝 없는 열정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 희세의 정력가이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의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력사의 풍파를 뚫고 승리하여 온 혁명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려는 드팀 없는 의지이다. 세기가 바뀌고 력사가 멀리 전진했다고 해도 조선혁명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순간의 탈선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 났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혁명이 계속되는 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원리교양과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제 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일떠서며 우리의 로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살리고 우리의것을 적극 내세워야 한

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민족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열렬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이다.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치체제는 굳건하며 우리 나라는 끄떡 없다.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백두령장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1선대오로,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 되고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사랑과 증오의 심장을 지녀야 한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립장은 단호하며 우리의 총대는 무자비하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덤벼 드는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이 될것이며 적들의 침략적아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사치 못할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일당백구호를 높이 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생활을 통하여 인민군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새긴 인민이다. 전체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혈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를 옹군애민사상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군민대행진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우리 제도제일주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려는 애국의 열정이 높뛰고 있다. 우리 사상,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하자는것도 결국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는데 있다.

현 시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립경제의 현실적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 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는 새로 꾸려 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이다.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사회적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나라의 륭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 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자면 온 사회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 비상히 앙양된 정치적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일떠서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 기질이다.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건느던 그 불굴의 정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이 온 나라에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질것을 요구한다.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는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려는 라남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백번 천번 다시 일어 나 기어이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라남의 혁명적인 일본새가 차넘쳐야 한다.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방법에서 벗어 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강한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닌 손탁이 센 일군,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오늘의 대진군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진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빛나는 계승속에 혁신이 있고 미래가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래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당사업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당의 기초를 축성하던 그때의 순결한 혁명정신이 맥박쳐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미전에 내놓으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방침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요인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고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데로 집중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서 3위1체를 확고히 보장하여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진격명령은 내렸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고난의 행군≫속에서 억세여 진 **김정일**장군의 혁명전사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칠 때는 왔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비약의 해,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의의 깊은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암살할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페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테로≫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 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제국주의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백두의 혈통을 이어 나가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백두산3대장군이 추켜 든 혁명의 붉은기가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휘날리고 있고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를 막을수 없는 힘으로 떠밀어 주고 있다. 영광스러운 백승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장군별, 백두광명성을 우러르며 헤쳐 온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이어 나갈것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하여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영광의 2001년이여

로동신문 정론, 주체90(2001)년 12월 30일

새 세기의 벽을 울리며 격동의 한해가 흘러 갔다.

위대한 백두산장군을 따라 새 세기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온 영웅적인민이 크나큰 긍지와 뜨거운 추억을 안고 잊을수 없는 2001년을 바래우고 있다.

우리는 반만년 흘러 온 우리 민족사에 2001년을 특별히 기록하여야 한다.

지구의 한복판에서는 백두산장군의 발걸음이 지축을 쿵쿵 울렸고 우리 조국땅 우에는 선군시대의 새 아리랑이 터져 나온 2001년,

2001년이여,

력사의 년륜을 긍지높이 새기라.

21세기의 위대한 주인공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발걸음 따라 흐른 2001년은 강성대국조선의 활로를 세기의 한끝까지 열어 놓았다.

눈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 또다시 그 몇번째로 넘으셨던 저 철령에도, 세상을 들었다 놓은 외국방문길에서 돌아 오시는 장군님을 설레며 맞이했던 저 두만강가에도, 장군님 다녀 가신 황해남도의 천지개벽된 땅우에도 흰 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눈 내리는 전선길에서 한해를 시작하시고 이해의 마지막 나날도 눈 내리는 전선길에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추억의 세계 그 얼마나 뜨거운것이랴.

나의 조국, 나의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심장 불 태우시며 이 한해 걸어 오신 길들과 조국의 운명 지켜 오르신 험산고지들, 인민의 행복을 열망하시며 지새신 밤들이 우리 장군님 눈가에 그 얼마나 삼삼히 어려 올것인가.

붉은 꽃 정히 들고 만수대언덕을 오르는 사람들과 설맞이노래춤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저기 라남의 로동계급과 대홍단의 농업근로자들, 최전연의 총 잡은 병사들을 비롯하여 애국의 더운 땀과 미래에 대한 사랑을 뿌려 2001년이라는 력사의 대하를 마련한 이 나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추억의 눈이 감회롭게 내린다.

2001년이여,

너는 이 땅에 무엇을 새겼느냐.

우리 혁명은 이 한해 력사의 어느 구간을 지나왔으며 우리는 이해에 무엇을 하였는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는 지난 1년과 같은 세월의 흐름이 끝없이 이어 져 왔다.

한해가 흘러 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해의 특징과 성과를 반영한 이름들을 달아 놓았다.

망국의 해, 광복의 해, 전승의 해, 전환의 해...

사람들이여, 우리 2001년을 무엇이라 이름 지을것인가.

조용히 뒤돌아 보면 이해는 거대한 진동속에 시련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면서 동이 트는것과 같은 모양으로 안겨 온다.

그렇다.우리는 2001년의 이름을 해돋이해라고 부른다.

해돋이해 !

우리는 해돋이에 비겨서 력사의 계선이 뚜렷이 그어 지고 시대의 색채가 완연히 달라 진 이해의 모습을 방불히 그려 볼수 있으며 해돋이라는 언어로써 강성대국조선이 큰 걸음을 내짚은 이해의 가치와 무게를 다 담을수 있다.

새 세기 첫해의 첫 아침 백두산해돋이는 류달리 장쾌하였다.

이곳에서 오래 생활한 관측자들이 일찌기 보지 못한 그렇듯 붉고 그렇듯 황홀한 해돋이가 백두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대자연이 펼쳐 놓은 이 장관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예고였던가.

그것은 새 세기와 더불어 세계의 지평선에 우렷이 떠오르는 강성대국조선의 존엄 높은 모습이였다.

먹장구름 흩날려 보내며 불 타오르는 백두의 해돋이처럼 조선은 시련의 눈보라를 용감무쌍히 박차며 새 세기의 서막을 들어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백두령봉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섰으며 우리앞에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가 펼쳐 지고 있습니다.≫**

이해의 설날의 화폭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삼삼하다.

눈발이 뽀얗게 휘쓰는 고지의 전호가에 병사들과 함께 계시던 우리의 장군님, 병사들은 기세충천하여 노래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를 부르고 장군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화폭,

이것은 백두의 룡마를 타시고 앞장서 내달리시는 위대한 장군님 따라 공격출발진지를 박차고 진격의 첫 걸음을 내짚은 조선의 기세를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였다.

백두령장의 새 세기 출전북은 이렇게 울렸다.

이해의 봄은 시내가의 하얀 버들개지로부터 오지 않았다.

봄은 전선바람에 실려 오는 철령의 진달래향기로부터 왔다.전선으로부터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이 매일같이 전해 지는 속에 이 나라 초목이 푸르러 지고 꽃들이 피여 났다.강성대국의 땅답게 정리된 협동벌들에서는 새 세기의 첫 씨앗을 묻었다.

광활한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던 렬차의 기적소리가 들려 온다.

주체의 태양빛을 온 세상에 뿌리시며 5만여리의 머나먼 길을 이어 가시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그 영상이 어려 온다.

7, 8월의 폭양계절에 지구에는 자연의 온도보다 더 뜨겁고 거세찬 **김정일**열풍이 불어 쳤으니 세계는 이것을 두고 ≪2001년의 제1국제사변≫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흘러 간 우리의 여름이였다.

이해의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게 불 타는 칠보산의 가을풍경처럼 흥그러웠다.

라남에서 새로운 혁신의 봉화가 타 올라 새 세기 강성대



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 마련되였다.마침내 감자농사혁명의 고향 대홍단에서 기쁜 소식이 울려 나왔다.

이렇게 가을이 가고 이렇게 소리치며 한해가 흘러 왔다.

감개무량하다.

우리는 새 세기의 첫 걸음을 참으로 잘 떼였으며 2001년을 새 천년기의 첫해답게 보냈다.

새 세기의 첫해답게 세상을 들었다 놓으며 이 한해 본때있게 싸웠고 벅차게 창조하였으며 흥이 나고 멋이 있게 살았다.

하여 2001년, 바로 이해에 이 땅에서는 주체강국의 새 아리랑이 터져 나왔다.

≪고난의 행군≫때부터 시련의 얼음장을 밀어 내며 그득히 차오른 강성대국건설의 흥과 멋이 새 세기의 분출구를 찾아 봄물처럼 흘러 나와 2001년이라는 력사의 오선지우에 ≪강성부흥아리랑≫을 새겼다.

2001년은 장엄하고 씩씩한 나팔소리도 있고 열정적이면서도 전투적인 곡조도 있으며 서정적이고 랑만적인 울림도 있는 하나의 력사교향악이였다.

천리방선 우리의 병사들은 또 한해 총대를 더 억세게 벼렸고 초소마다를 만년, 억년의 성새로 끄떡없이 다졌다.

또 한해 우리 조국의 땅들은 만년대계의 토지정리로 더욱 번듯해 졌고 명산들은 더 한껏 아름다와 졌다.

이해에 곳곳의 최신식가금공장들에서는 더 많은 알과 고기를 쏟아 냈으며 곳곳의 메기공장, 양어장들마다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들이 욱실거려 인민의 웃음을 꽃 피워 주었다. 도처에서 많은 가금기지, 양어기지들이 새롭게 일떠서고 현대화되여 인민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다.

삼지연지구가 멋지게 꾸려 지고 백두산마을들이 환하게 꾸려 져 백두산지구가 몰라 보게 달라 지고 수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새집들이하는 경사가 났다.혁명적군인정신이 과일향기처럼 차 넘치는 백리청춘과원에서는 황금나무, 능금나무들이 보다 좋은 래일을 그려 주며 흐뭇한 열매들을 무르익혔다.

정보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온 나라에 콤퓨터바람이 급속히 불어 쳤다.고난의 시기에 문을 닫았던 휴양소들과 정양소들이 사회주의시책을 노래하며 자기의 문들을 활짝 열었다.

우리의 장한 녀자축구선수들이 아시아의 패권을 쥠으로써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고 새 세기 첫해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더불어 2001년은 세계의 머리우에 주체조선의 존엄 높은 이름을 높이 들어 올렸다.

≪조선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관계의 중심, 세계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대국≫, ≪세계속에 조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속에 세계가 있다.조선을 축으로 하여 지구가 돌고 있다.**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은 세계의 각광을 모으고 있다.≫

각국의 통신, 방송은 조선의 지위와 역할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의혹과 불신과 랭정의 표정을 털어 버리고 존경과 신뢰, 따뜻한 마음과 협력의 뜻을 안고 동방의 조선을 향하여 온 세계가 저저마다 손을 내밀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선의 존엄과 명예,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이 오늘처럼 높아 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력사여, 말하라.

100년전 세계속의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였더냐.

남들이 20세기를 맞이하여 희망과 포부에 부풀어 국력과 문명을 떠들 때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던 동방의 이 땅우에는 망국의 검은 비운이 드리워 지고 있었다.

돈이 없고 무기 없어 외적의 마수에 명줄을 잡힌 속에 맞이한 20세기의 첫 설날 아침 국채를 연기해 달라고 이역의 거리를 방랑자처럼 헤맸던 신세,

가련한 이 나라의 모습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대국들의 발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축구공,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들의 먹이감이라고 했으니 3천리강산에 차넘치는 약소민족의 서러운 탄식속에 맞이했던 조선의 20세기였다.

20세기 첫해와 21세기 첫해는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비탄의 아리랑과 ≪강성부흥아리랑≫,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와 해빛 밝은 두만강의 노래,

서산락일의 1901년과 백두산해돋이의 2001년,

오늘의 자주와 어제날의 예속, 오늘의 존엄과 어제날의 수치, 오늘의 희망과 어제날의 절망은 하늘땅차이이다.

그렇다.세기의 하늘가에 위대한 **김일성**민족 만세를 가슴후련히 터쳐 올린 2001년이다.

바로 오늘의 강성대국북소리를 울리자고, 오늘의 해돋이를 안아 올리자고 고난의 시기 이 땅에서는 그렇듯 세차게 백두산눈보라가 지동쳤고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운것이 아니랴.

≪세계화≫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자주화바람으로 쳐 갈기며 자기 식으로 살아 온 우리, 또 한해 악랄하게 감행된 제국주의의 갖은 책동을 드세찬 선군력으로 제압해 온 우리, 시련은 많고 곤난은 컸어도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의 위력을 더 크게 떨쳐 온 우리는 가슴 후련하게 웃으며 송년의 축배를 높이 들게 되였다.

력사의 숫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강성대국조선을 이끌어 오신 절세의 위인의 모습이 숭엄하게 안겨 온다.

위대한 **김정일**장군,

그이는 2001년의 위대한 설계가, 위대한 창조자, 위대한 주인이시다.

반만년민족사의 흐름 우에 해돋이마냥 우뚝 떠 올라 이 땅과 온 세상을 끓어 번지게 한 사변들과 승리들, 성스러운 자욱들을 새겨 온 2001년의 격동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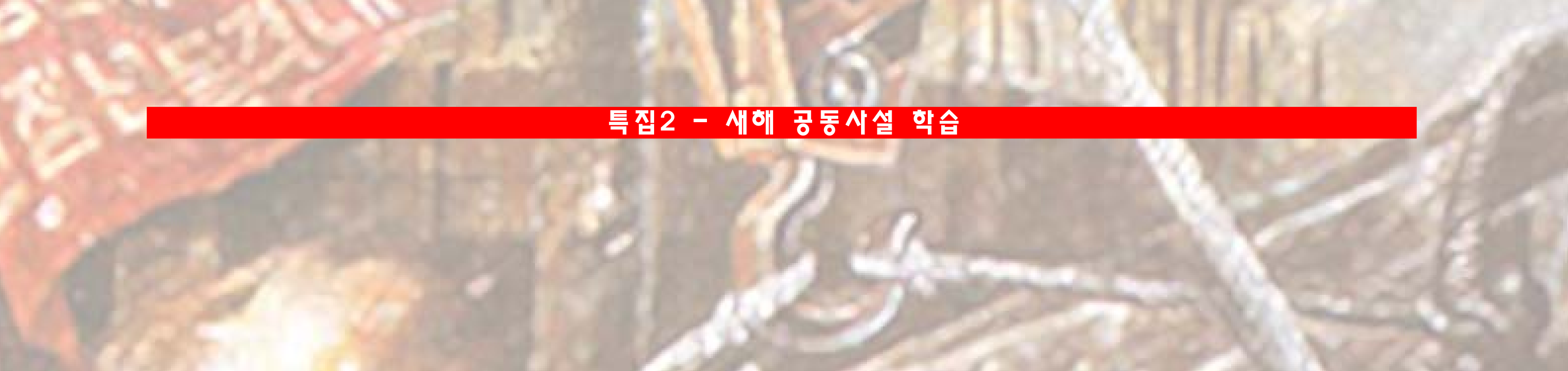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세상을 제 모양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키를 억세게 잡으시고 사나운 폭풍을 휘잡아 2001년을 자신의 의지대로 흐르게 하시였다.

력사가 달라 질수 있었다.

우리 장군님 아니시라면 21세기 첫해의 운명이 제멋대로 흘러 갈수 있었다.

제국주의초대국이 새해벽두부터 한 주권국가에 폭탄세례를 안기고 미싸일방위체계로 세상을 불안케 하며 인류의 운명을 롱락하려 들었다.≪세계화≫바람은 온 지구를 어지



럽히며 미국화의 미궁속에 빠뜨렸다.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별안간 폭음이 터지고 곪아 오던 상처자리들이 터지듯 도처에서 각이한 양상의 전쟁들이 산발하는 속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 갔고 약소민족들이 멸살의 위험을 안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력사의 광란은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는 예측할수 없이 불어 치며 인류의 정치경제생활에 혼란과 불행을 들씌웠다.

이 땅에서만은 그렇게 될수 없었다.

새 세기의 출발선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세계정치계를 들었다 놓으며 백두산바람이 터졌다.

선군정치의 필승의 전략으로 세계자주화의 궤도를 마련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이해의 벽두에 세계의 한복판에서 새 세기흐름방향을 의미심장하게 그어 주시였다.

조선의 2001년은 장군님의 시간표를 따라, 최고사령부 작전도의 붉은 화살표를 따라 드팀없이 흘러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5만여리 로씨야장정,

워싱톤의 책략가들이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또다시 랭전의 검은 구름을 지구에 몰아 오고 있는 때에 세계정치의 중심부에 기세차게 돌진하여 력사의 방향타를 돌려 놓은 이 사변으로 자주화의 활로는 또 한번 힘 있게 열렸다.

조로모스크바선언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을 분쇄하는 철추로서 ≪세계화≫에 대한 자주화의 선언, 전쟁에 대한 평화의 선언, 반동과 부정의에 대한 진보와 정의의 21세기의 선언으로 되였다.

크레믈리광장의 레닌묘를 방문하시여 공산주의자의 도덕의리의 세계사적모범을 보여 주시고 10월혁명광장과 ≪아브로라≫호를 방문하시여 자주위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드신 거룩한 자욱,

하싼의 국경마을부터 네바강반까지 20여일의 긴긴 나날 관례와 상식을 깨고 전례 없는 환대와 경모심을 받으시고 신비로운 매혹을 불러 일으키시며 광활한 대륙을 해 솟는 바다처럼 설레이게 하신 그 격동적인 화폭들...

세계는 21세기 자주와 정의를 수호할 강력한 무기가 조선의 **김정일**장군께 쥐여 져 있음을 실감했다.

그렇다.우리의 장군님은 자신의 위대성으로 새 세기의 하늘가에 21세기 자주의 해돋이를 들어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조국은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렸다.

지구에서는 백두산장군의 자주화바람이 불었고 조국땅에는 그 옛날 눈물의 아리랑이 존엄과 긍지의 아리랑으로 바뀌는 시대적전환기가 펼쳐 졌다.

이해의 마지막기슭에 서니 두만강 푸른 물결에 어렸던 장군님의 애국정서가 가슴에 흘러 든다.

머나먼 로씨야방문길에서 돌아 오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의 풍운이 실린 사연 많은 강물에 추억을 실으시며 어제날에는 눈물의 두만강이라고 노래하던 이 강이 오늘은 행복의 두만강으로 되였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시던 그 이야기,

하루빨리 내 나라, 내 민족을 세계우에 강성대국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시려는 장군님의 이 애국의 열망과 더불어 참으로 벅찬 투쟁과 창조의 날과 달들이 이 땅에 흘러 갔다.

굽이굽이 전선길이여, 말하라.

우리 장군님 이해만도 얼마나 많은 고지우에 오르셨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주시였으며 얼마나 많은 혁명일화, 애국일화를 남기시였던가.

수만리 전선길로 무적의 선군진지를 또 한겹 철벽으로 다지심으로써 끄떡없어 아리랑이 울리게 하시였고 ≪고난의 행군≫의 흔적을 털어 버리시고 조국땅곳곳에 흥할 징조들이 꽃 피게 하심으로써 흥이로다 아리랑이 울리게 하시였다.

누구도 잠에서 깨여 나지 못했던 새벽도 이른 새벽 장군님께서 수행원들도 없이 조용히 사회주의무릉도원의 모습을 갖춘 범안리를 찾으시였던 전설 같은 이야기,

누구도 몰랐다. 무더운 삼복철의 이른 새벽 꿈결에도 그리던 장군님께서 소문없이 찾아 오시여 양어장이며 발전소며 제대군인가족의 살림집까지 일일이 돌아 보시고 가신줄을 어찌 알았으랴.

이렇게 사랑의 전설을 남기시고 모두들 잘 있으라고 따뜻이 손을 잡아 주시며 장군님께서 마을을 떠나실 때야 비로소 아침해가 산마루에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해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밝았다.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이어 진 장군님의 사랑의 길 우에는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꽃을 뿌려 준 한폭의 그림 같은 화폭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 졌던가.

성천강의 계단식발전소들이며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을 찾으시여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한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을 거듭거듭 치하해 주시며 끝 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

전선길을 달리시는 야전차의 차창너머로 새로 정리한 황해남도의 드넓은 논벌들과 곳곳에 일떠선 아담한 농촌마을들을 바라보시며 이것이 사회주의선경이라고, 여기서도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있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신 우리 장군님,

고난을 겪고 난 인민에게 더 좋은 래일에 대한 랑만과 신심을 안겨 주고 싶으시여 울긋불긋 사과알들이 탐스럽게 익은 백리청춘과원이며 장쾌한 울림폭포를 배경으로 환히 웃으시며 서계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을 새기며 조국의 사계절이 흘렀다.

우리 장군님의 그 불덩이같이 이글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뜨거운 열망은 하나의 의미심장한 사변을 용암처럼 분출시켰다.

드센 숨결로 끓어 번지는 라남의 기계공업기지를 돌아보시면서 주먹을 높이 쳐드시고 이제는 우리가 라남의 봉화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힘 있게 선언하신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말씀이 천만심장에 새로운 진군의 불을 달았다.

≪강성부흥아리랑≫은 가볍게 읊조릴 그런 흥타령이 아니다.

그것은 지구의 대륙에 조선의 백두산바람을 드세게 일으키고 전진하는 이 땅에 경이적인 현실을 예고하는 새 세기 봉화를 지펴 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메아리이다.

그렇다.2001년은 우리 장군님의것이다.

해가 뜨고 져서 하루가 아니고 달과 달이 흘러 계절이 아니였다.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세련된 령도의 손길을 따라 2001년의 365일이 엮어 졌다.

하여 우리는 력사의 페지에 새긴다.

2001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존함으로 불러야 할 장군님의 투쟁의 해, 사랑의 해, 승리의 해라고.

2001년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군대, 장군님과 우리 인민이 사랑과 충성의 피줄기로 더욱 굳건히 이어 진 혼연일체의 해였다.

우리 혁명의 매 년대들은 언제나 단결로 전진하고 단결로 승리해 온 력사였다.

그러나 20세기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고난의 6년으로부터 강성대국에로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제낀 이해와 같이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백배천배로 떨쳐 진 해는 없었다.

이 섣달의 마지막나날도 천리전선길을 달리시며 승리의 한해를 추억하실 우리 장군님의 뇌리에 떠오르시리라.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던 천리방선의 사랑하는 병사들,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발전소를 세우고 토지를 정리하고 양어장을 꾸리고 문화주택을 일떠세운 인민의 충복들, 만능의 실력가들, ≪영웅적인 사나이≫들…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장군님의 마음속에 더욱 뜨겁게 뿌리 내리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순결하게 자리잡은 그리움의 피줄기로 온 한해가 맥맥히 이어 져 흘렀다.

이국의 어느 깊은 밤엔 두고 온 조국의 인민들이 사무치게 생각나시여 달리는 렬차안에서 조용히 눈물 지으신 장군님.

장군님 안 계시는 그 나날 혼연일체의 거세찬 흐름으로 끓어 번진 우리 조국강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의 한가운데를 누비시며 21세기 태양의 빛발을 뿌리시였고 우리 인민은 수령숭배의 진실한 열광, 혼연일체폭풍을 온 세상에 휘뿌리였다.

잊을수 없다.

우리의 계순희선수가 유렵의 한복판에서 맞다드는 적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공화국기발을 높이 띄운 승리의 소식을 아버지장군님께 전해 드리고 기상수문국으로 모스크바의 날씨를 걱정하는 문의전화가 그칠새없이 걸려 오던 뜨거운 나날들이…

헤여진 아버지를 그리는 자식들처럼 아침마다 장군님 소식이 실린 신문을 펼쳐 들고 거둘줄 몰랐던 우리 인민들,

경애하는 장군님 오실 날을 손 꼽아 기다려 온 나라가 그리움의 바다 되여 출렁이며 사람마다 로력적위훈의 꽃다발을 엮었다.장군님을 그리며 우리의 용해공들은 한차지 쇠물을 더 뽑았고 우리 농민들은 한벌 더 김을 맸으며 과학지구에서는 탐구의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그무렵 한 외국출판물은 ≪온 나라 인민들이 그리움속에≫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령의 외국방문이 평도자에 대한 전 인민적숭배열의 분화구로 되고 사람들이 크나큰 격정과 흥분에 넘쳐 수령의 자욱자욱을 마음속으로 따라 가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고 격찬하였다.

우리 인민은 장군님 계시여 세상이 밝고 우리 삶의 보람이 있으며 장군님 없으면 태양 없는 세상이고 장군님 떠나 순간도 살수 없음을 이해에 또 한번 페부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이끄시는 2001년 행군길의 맨 앞장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제1기수 우리 인민군대가 서 있었다.

반만년 덧없이 흐르던 림진강을 가로 막아 발전소를 세운 그 영웅적위훈도, 천험의 산중에 길을 내여 또 하나의 명승 울림폭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한 애국공적도 우리 군대의 것이며 백리청춘과원의 흐뭇한 열매에도 우리 인민군대의 피땀이 스며 있다.

걸음걸음 최고사령관을 따른 인민군대의 뒤에 훌륭한 우리 인민이 따라 섰다.

백두삼천리벌에 무릉도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꽃 피우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고 대지를 가꾸어 온 대홍단사람들, 대담하고 이악한 투쟁기풍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 제일 많은 일을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의 선구자들, 기수들이라고 높이 내세워 주신 함경남도와 황해남도사람들…

허리띠를 또 한번 조이고 죽음도 각오하고 일어 나 심장의 불을 활활 태우며 강성대국은 바로 이렇게 솟아 오르는 것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새 세기의 첫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갈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은 라남의 로동계급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실력으로 주체과학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해 가는 김책공대의 교육일군들과 졸업생들, 선군시대에 ≪피바다≫의 총대진리를 다시금 높이 울려 준 혁명적예술인들은 또 얼마나 장하고 미더운가.

그렇다. 우리는 새 세기의 첫 걸음도 일심단결로 떼고 새 세기 첫해의 눈 부신 성과도 일심단결로 안아 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의 생활을 그 어떤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과도 바꾸지 않을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준 2001년이다.

첫 걸음에 만리길의 운명이 달린다.

첫 시작의 방향각에 따라 종착점이 달라 진다.

2001년은 우리의 백년, 천년의 미래를 결정하였다.

이 땅에 터져 오른 새 아리랑도 백년의 노래이고 라남에서 타오른 봉화도 백년의 봉화이다.

21세기는 백두산장군의 활무대이다.

2001년은 폭풍 사나운 21세기를 다스릴 자격과 능력은 오직 한분,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가장 힘 있는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만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조선은 영원히 **김정일**장군식으로 살아 나간다.

이 바람, 저 바람이 아무리 지구를 휩쓸고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위대한 장군님 운전대를 틀어 쥐신 강성대국기관차는 선군과 일심단결의 억척궤도를 따라 끄떡없이 전진해 나갈것이다.

당의 전투적호소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에로

로동신문 사설, 주체91(2002)년 1월 3일

민족사에 길이 빛날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백전백승의 진군로가 펼쳐 졌다.

새해공동사설에 접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기세와 앙양된 열의로 하여 지금 온 나라는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

공동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21세기의 서막을 장엄하게 열어 놓은 지난해의 전투를 긍지높이 총화한 승리의 기록이며 뜻 깊은 올해의 투쟁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밝힌 전투적기치이다.

새해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열망입니다.≫**

새해공동사설에는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조선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철의 신념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열망이 집대성되여 있다. 이것으로 하여 공동사설은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구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진군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인류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처럼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며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 올린 걸출한 수령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가 빛발치고 있고 무적필승의 우리 혁명무력에도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성스러운 력사가 어리여 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 제도에도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새겨 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리신 거대한 혁명업적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공동사설은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4대제일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4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고 건군의 어버이이시며 주체사회주의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이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을 꽃 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애국애민의 숭고한 의지와 무한대한 열정,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며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올해공동사설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한 지난해의 투쟁성과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이 뜻 깊은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총 돌격전을 벌릴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올해에 총 돌격전을 벌려 나갈 때 우리 조국은 강성대국의 령마루우에 하루빨리 올라 서게 될 것이다.

혁명의 령도자는 공동사설을 통하여 투쟁의 진로를 밝히며 전체 인민들은 공동사설을 피 끓는 심장으로 받아 안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선군시대에 창조된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 있는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올해의 혁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뜻 깊은 올해의 혁명적진군에서 승리의 사상정신적원천은 열화 같은 수령숭배심,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순결한 혁명적량심과 도덕의리로 심장을 불 태우며 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새해전투의 첫 시작부터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열풍을 드세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서 과시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일관성 있게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며 수령님께서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이룩하신 혁명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에 떨쳐 나선 우리 당과 혁명대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사상과 감정, 운명을 함께 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가 꽉 차넘쳐야 한다. 지난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장군님께 충성의 로력적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훌륭한 기풍이 올해의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우리 혁명의 전 세대들이 지녔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다.

오늘의 혁명적진군은 천리마대진군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건느던 그 불굴의 정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으로 투쟁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호소에 실천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불 타는 강을 건느고 준엄한 시련의 고비도 헤치며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혁명의 수뇌부를 무장으로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령토가 있는 한 재더미우에서도 얼마든지 일떠설수 있다는 배짱을 지니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올해의 진군에서 굿굿이 계승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펴 주신 라남의 봉화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강선의 봉화, 1990년대 성강의 봉화의 계승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의 장엄한 홰불이다.

라남로동계급은 자기들을 새 세기 혁명적진군의 선봉대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라남의 봉화가 영원히 꺼질줄모르는 강성대국건설의 홰불로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라남로동계급처럼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고 결사옹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들과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성의 대진군전투의 앞장에 서서 경제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에서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가는것은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올해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륭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우리는 새로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분야들을 하루빨리 세계제일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난 날의 사고관점과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나가야 한다. 제품을 하나 생산하고 건설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며 경제를 추켜 세워도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도로 현대화, 정보화된 경제로 발전시켜야한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혁명적진군은 우리 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주체의 진군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 사상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의 진군에서 투철한 주체의 신념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눈은 세계를 굽어 보면서도 발은 어디까지나 조선땅에 든든히 부이고 우리 식의 혁명방식,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대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과학기술과 경제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할 투사들은 당원들이다.

가슴에 당증을 지닌 조선로동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적신임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의 앞장에 서서 영웅적위훈과 로력적혁신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당원들은 밤잠도 덜자고 진격의 돌파구도 앞장에서 열어 나가며 어렵고 힘든 일에도 남 먼저 뛰여 드는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군의 운전대를 틀어 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올해공동사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중요하게 일군들에게 달려 있다. 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충천하는 기세에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과 책임성, 조직력이 안받침될 때 반드시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 없는 립장이다. 일군들은 올해공동사설을 심장깊이 새기고 강한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닌 손탁이 센 일군,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나가는 영웅적사나이,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자면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전투적참모부로서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새해벽두부터 잘 짜고 들어 실속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올해공동사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 거기에 담겨 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을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4대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진군길은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락원의 행군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 **김정일**강성대국에로 뻗어 있는 승리의 길이다. 걸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희세의 정력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다지고 다진 강력한 국력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강성대국의 새 시대를 펼치게 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 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올해의 혁명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찬란한 현실로 꽃 피워나가자.

올해의 뜻 깊은 명절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열매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사설, 주체91(2002)년 1월 4일

오늘 우리 인민은 커다란 환희와 혁명적열정에 넘쳐 뜻 깊은 올해를 반만년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영광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길에 들어 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오늘의 앙양된 혁명적분위기와 드높은 사기는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의 발현이며 억센 혼연일체의 위력의 과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의 력사, 자랑스러운 군대의 력사를 가진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올해에 맞이하는 민족최대의 명절들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분발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수 있습니다.≫

올해의 뜻 깊은 명절들이 우리 혁명과 민족의 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의의는 참으로 비상하다. **김일성**조선의 영광 넘친 력사와 오늘의 위용, 희망찬 미래가 모두 이 명절들과 하나로 이어 져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20세기는 극적인 운명전환을 이룩한 커다란 변혁과 번영의 세기로 아로새겨 져 있다. 태양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절은 우리 민족력사에서 가장 뜻 깊은 세기적 명절이다. 태양절이 있어 이 땅에 민족자주력사의 시원이 열리였고 백두광명성의 탄생절이 있어 민족적륭성번영의 력사가 후손만대로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이 명절들이 없었더라면 긍지로운 20세기, 희망 넘친 21세기가 없었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력사가 곧 군대의 력사로 되고 있다. 우리 군대는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걸출한 령장들을 최고수위에 모시고 자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하며 주체혁명의 승리와 민족번영의 력사를 빛나게 개척하여 왔다. 탁월한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무력의 력사가 일치한것은 위대한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신 우리 혁명에서만 있을수 있는 더 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 져 온 강성민족의 70년 력사를 기념하는 전 민족적, 전 인민적경사의 날로 될것이다.

자기 민족력사에서 가장 의의깊은 명절들의 정주년을 한해에 동시에 기념하는것은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영웅적으로 돌파한 우리 조국땅우에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올해 혁명적명절들이 더욱 의의깊은것으로 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경사에 경사가 겹친 복 받은 해이다.

올해의 혁명적명절들을 뜻 깊게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경도와 위도를 넘어 세계적판도에서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를 더욱 북 돋아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이 올해에 맞이하는 뜻 깊은 명절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주체조선의 대축전이다.

우리 혁명은 최근년간에 민족의 명맥이 끊기느냐, 지켜 지느냐 하는 준엄한 시련을 겪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시였으며 강성대국의 활로를 열어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와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지난 수년간 우리 조국청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중대한 사변들이 기록되였고 올해를 뜻 깊게 장식할 풍만한 열매들이 무르익게 되였다.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치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꾸어 오신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열매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숭고한 의리와 충성심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없었더라면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세계사적인 승리도, 우리 인민의 긍지 높은 삶도 행복도 없었을것이다.

승리의 포성이 울리는 오늘을 내다 보시고 혁명의 총대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시고 강성대국의 만년토대를 튼튼히 닦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공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올해의 태양절과 건군절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야 할 영예롭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올해 혁명적명절들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 진군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시고 한생을 바쳐 오신 숭고한 위업이다. 우리는 올해의 뜻 깊은 명절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결실로 빛내임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념원과 유훈을 꽃 피우고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게 하여야 한다. 뜻 깊은 올해를 민족최대의 경사의 해로 가장 의의 깊게 빛내이기 위한 투쟁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혁명적의리의 삶이 있다.

올해의 명절들을 뜻 깊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은 ≪고난의 행군≫을 영웅적으로 돌파한 우리 인민에게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자랑스러운 진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만대를 두고 행복을 누려 갈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는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헤쳐 온 인민에게 기어이 행복의 락원을 펼쳐 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가 전면적으로 꽃 펴나게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힘차게 투쟁할 때 이 땅우에는 민족번영의 전면적개화기가 펼쳐 지게 되고 올해가 명실공히 전 민족적대경사와 환희의 해로, 강성대국건설력사의 전환의 리정표로 찬란히 빛나게 될것이다.

올해의 뜻 깊은 명절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열매로 빛내이려는것은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올해의 충성의 총 돌격전에서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 시련속에서 단련된 **김일성**민족의 슬기와 투쟁력이 온 세상에 더욱 힘차게 떨쳐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앙양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뜻 깊은 명절들을 맞는 올해를 **김일성**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의의 깊게 장식하여야 한다.

수령숭배의 열풍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기 위한 일대 사상적 공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숭배는 **김일성**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그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세상천지가 천만번 뒤집힌대도 자기 수령만을 열렬히 그리며 따르는 군대와 인민의 수령숭배의 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고 넘치기에 우리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휘황하다.

우리는 혁명적경사의 해인 올해에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만천하에 떨치기 위한 일대 사상적공세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수령숭배는 수령의 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의 감정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 쥐고 나가며 주체사상교양과 선전에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력사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승리의 력사로 줄기차게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이 뿌리 내리고 활짝 꽃 펴난 사회주의현실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 내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게 된 근본비결이 주체사상에 있다는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숭배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의지이다.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올해의 정치사상공세를 벌려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 그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닥쳐 와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으로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구현하고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혁명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꽃피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를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전통을 끝 없이 빛내여 나가는 투쟁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업적과 전통은 **김일성**민족의 번영의 만년터전이다.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는것은 이 땅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혁명적도리, 인간적의리이다.

우리는 올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고귀한 전통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더없이 귀중한것은 무적강군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우리 민족을 강성민족으로 키워 주신것이다. 우리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최고의 높이에서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그 승리를 떨쳐 주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신 고귀한 유산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피눈물의 바다에서 굳건히 지켜 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의 요구대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기 위하여 애국의 열정을 바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전통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더 큰 승리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서 크나큰 로력적성과를 이룩한 혁신과 비약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지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지금은 구보로 달려 온 준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해인 올해를 일생에서 가장 의의 있는 해로 아로새길 애국충정의 의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높뛰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 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민족번영에 이바지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실적을 올리는것으로 올해의 명절들을 뜻 깊게 맞이하여야 한다.

올해의 로력투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할 사람들은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이다. 채취공업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에서부터 경제적앙양이 일어 나고 혁신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도 끓게 되고 올해의 혁명적명절들을 보다 큰 로력적성과속에 맞이할수 있게 된다. 경제건설의 주공전선 일군들은 올해 혁명적대진군의 앞채가 자신들에게 메워 져 있다는 자각으로 심장을 불 태우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 큰 로력적혁신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의 원대하고 대담한 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 - 태성호물길공사를 더욱 힘 있게 다그쳐야 한다.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고 그 은이 나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인 일본새를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에서 우리 당은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교육일군들은 나라의 륭성번영이 자신들의 역할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올해의 총 진군에서 깨끗한 량심과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명절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열매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어떻게 떨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일심단결은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력의 심장이며 강성대국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주체강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높이 떨쳐야 한다.

누구나 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결같이 따르고 그리워 하며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나가는 2000년대의 ≪ㅌ. ㄷ≫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는 20세기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오는 나날에 더욱 억척같이 다져 진 우리의 일심단결이 당의 강성대국구상을 현실로 꽃 피우기 위한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군민일치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뜻 깊은 올해에 옹군애민사상만세소리가 힘차게 울리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올해의 뜻 깊은 명절을 기념하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특전이고 크나큰 영광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는 올해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줄 휘황한 등대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 단련된 투쟁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의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들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열매로 빛내여 나갈것이다.

고난의 천리를 걸어 온 우리의 앞길에 행복의 만리가 펼쳐 지고 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시대, 민족적륭성번영의 일대 비약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

금강산사랑연대(준), 금강산에서 워크샵 열어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는 구랍 31일 오후 9시 금강산 해금강 호텔 2층 회의실에서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 운동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1차 워크샵을 열고 조직구성과 주요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샵은 심의섭 공동대표의 사회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준비위 활동 보고에 이어 참가자들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 주요하게 논의된 것은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의 목표와 원칙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운동≫의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남북교류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자민련 설득의 필요성 ▲금강산 관광 살리기가 현대 살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의식 필요 ▲≪금강산 관광 살리기≫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으로 육로관광에 맞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내용이 제출됐다.

또한 이날 워크샵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명전≫과 캠페인, 토론회, ≪범국민 금강산 가기 캠페인≫ 이외에 앞으로 ▲TV 토론 ▲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평화관광 보내기 운동≫ 추진 ▲국제연대활동 ▲인터넷 웹진 운영을 통한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한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명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청원운동≫ 성격이 아닌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 서명전≫으로 하되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워크샵을 통해 제기된 방향모색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23개의 참가단체를 좀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워크샵은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하순경에 정식 발족을 앞둔 상황에서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 살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대안 제시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져 아쉬움을 남겼다.

참석자 중 일부는 1월 하순경 발족이라는 제한성을 넘어 좀더 충실한 준비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금강산사랑연대(준) 17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30일 속초항에서 설봉호 승선을 앞두고 ≪서명전≫을 전개했으며 31일 금강산 온정각에서도 금강산행을 마치고 ≪서명전≫을 전개해 300여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금강산사랑연대(준) 17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금강산 관광의 문제점들을 체험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금강산 관광을 실제 해보니 관광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현대 아산측은 이번 금강산사랑연대(준)의 참가자 일행과 동행하면서 고성항 부두 건설에서부터 3년여 동안 금강산 관광을 해오면서 겪었던 일화를 설명하는가 하면, 고성읍에 있는 현대의 영농단지를 견학시키는 등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금강산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번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여론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워크샵을 통해 처음으로 참가단체들이 이슈 제기,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논의를 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03

북측 민화협, 설맞이 행사 2월말 제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설맞이 남북공동행사를 2월말에 갖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에 의하면 7일 밤 8시 30분경 북측 민화협은 팩스를 통해 ≪우리의 최대 명절인 2월 16일 이전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 각계각층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측 준비위원회는 오늘(8일) 다시 한번 2월초 설맞이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의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남측이 제안한 ≪2월초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은 2월말 개최에 대해 행사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늘 남측이 보낼 팩스에 대한 북측 답변을 보고 종단과 통일연대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지만 아직은 ≪2월말 개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측 준비위원회가 지난 4일 팩스를 통해 오는 12일이나 15일 평양에서 2차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측 민화협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북측 민화협은 ≪실무접촉은 1월말에 갖는 게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08



불교인권위,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반대 평화행진 진행키로



불교인권위원회(불교인권위)는 8일 오전 11시 안국동 인권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주한미군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한 제1차 평화행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평화행진을 할 것이며, 행진은 매일 낮 12시 인권법당을 출발하여 미 대사관, 국방부, 용산 미군기지를 거쳐 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 예정지를 돌아오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화행진의 취지에 대해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상임의장은 ≪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음모와 다름없다≫며 ≪이번 행진이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주한미군 철거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인권위 소속 진관 스님은 ≪1월 8일은 불교 자주화 선언의 날≫이라며, ≪200만 신도, 2만 승려가 총궐기하여 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불교계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기자회견 이후 첫날의 행진자로 나선 진관 스님은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전물과 목탁을 들고 12시 인권법당을 출발하여 용산 주한미군기지로 출발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행진은 점심시간, 때아닌 목탁소리와 스님의 출현에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청 앞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철거민 문제로 농성을 하고 있던 이동수씨(상암동2공구 철거민대책위원장)는 ≪주한미군아파트 건립문제는 미군 철수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가 해야할 몫인데 같이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온 국민이 이 같은 행진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대사관과 국방부를 거쳐, 출발한지 3시간이 넘어서야 용산 미군기지 52번 게이트에 도착한 진관 스님은 목탁을 더욱 크게 두드리며 용산 주한미군기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행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관 스님은 ≪국회 앞까지 행진을 세 번 했으니까 이번이 네 번째≫라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주한미군들이 함부로 못한다≫며 주한미군아파트 건립이 저지될 때까지 끝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의 이번 평화행진은 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반대 의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어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저지 제1차 7일간 평화행진 1인 시위 일정과 행진장소이다.

[1인 시위 일정]

1월 8일(화) - 진관스님	1월 9일(수) - 설곡스님
1월 10일(목) - 혜소스님	1월 11일(금) - 도관스님
1월 12일(토) - 진관스님	1월 13일(일) - 일휴스님
1월 14일(월) - 진관스님	1월 15일(화) - 지원스님

* 7일 동안 매일 낮 12시 출발

[행진 코스]

인권법당-일본 대사관 앞-미 대사관 앞(30분)-시청-통일광장-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국방부 앞-미8군 사령부 앞-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 예정지 앞- 남산도로-시청 앞-미 대사관 앞-일본 대사관 앞-인권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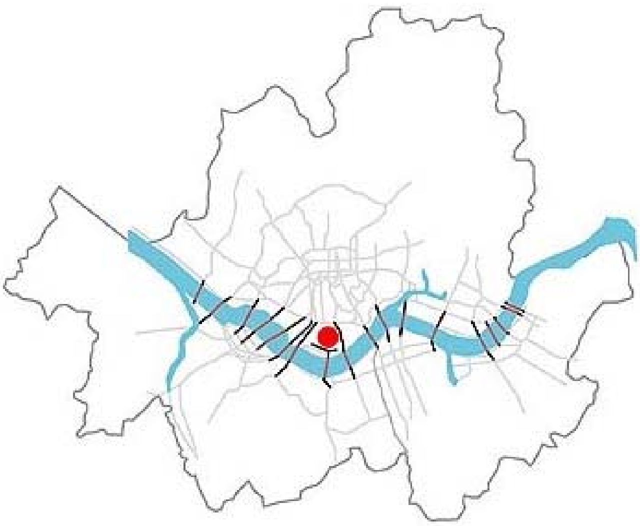


장동렬 기자(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08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러냐≫

동작교 북단도로 미군 반대로 무산
1970년 중반 서울시 도로계획국 간부들 증언

1970년대 중반 서울시 간부들 ≪미군이 반대했다≫



동작대교 북단이 후암동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신불구가 된 것은 주한미군 당국의 반대때문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970년대 중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손정목(74) 씨와 도시계획 과장을 지낸 김병린(62) 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작대교를 계획하고 건설할 당시 미군당국자를 찾아가 북단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미군이 반대해 무위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75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엉클어진 서울 도심을 일신하기 위해 중앙청 앞에서 용산미군기지를 통과해 정부 제1청사인 과천까지 일직선으로 도로를 뚫는 도로 계획선을 짰다≫면서 ≪그것은 서울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였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러나 이를 도시 계획으로 결정한 후 건설부에 심의를 받으려고 했지만 당시 건설부와 외무부는 동작대교 북단도로의 미8군기지 통과를 반대했다≫면서 ≪미군당국도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외무부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러한 미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로계획선 자체는 76년에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도시계획은 100년지대계로서 서울시의 고유영역이며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당시 구차춘 서울 시장을 설득해 용산기지를 통과하는 도로계획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후 동작대교 북단도로의 용산기지 통과 계획이 단순한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북단도로 건설을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군이 반대로 좌절됐다고 한다. 다시 김병린 씨의 증언이다.

≪78년 지하철 3·4호선 계획이 서면서 동작대교 건설과 함께 북단을 잇는 도로의 필요성 때문에 미8군과 본격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예산까지 세워 치밀하게 협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땐 미군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에 한해서 후암동쪽을 연결되는 길을 통해 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후암동쪽과 동작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내 버스를 다니게 하자는 의견이였지요. 그러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동작대교는 미래를 기약하며 다리 끝 부분을 잘라 놓은 채 완공된 것입니다.≫

이러한 김병린씨의 주장은 1973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손정목(74)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손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미군기지 때문에 지상에 길을 내지 못한다면 지하로라도 뚫어보려고 미군당국과 논의를 했지만 미군이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나 그러느냐≫고 반대해 무위로 돌아갔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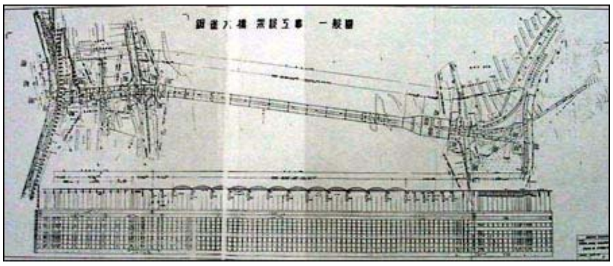
≪미군의 절대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동작대교가 지하철 지지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로교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미군기지 때문에 지상에 길을 내지 못한다면 지하도로라도 뚫어보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측은 ≪당신들은 미군기지 지하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지하도로를 뚫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 등 협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미군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서울시는커녕 정부도 협상은커녕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던 엄혹한 시절이었죠.≫

설계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동작대교의 역할

이러한 당시 서울시 도로계획국 간부들의 증언은 동작대교를 건설한 회사들의 설계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동작대교가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하에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설계회사였던 (주)대우엔지니어링과 시공사였던 (주)대우개발이 1979년 10월에 공동 작성한 ≪동작대교가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는 동작대교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고 있다.

≪동작대교는 도심과 과천면을 연결함으로써 제2정부종합청사 및 영동지구 개발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작대교는 교통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게 되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또한 제1한강교(한강대교)와 잠수교의 통행량을 일부 흡수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시설용량을 증대하고 지하철 4호선의 지지교로서의 역할과 다리 신설로 인한 우회 교통의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즉 동작대교의 건설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제2정부종합청사 및 영동지구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교통의 감축효과를 내는 것과 지하철 4호선의 지지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대로라면 동작대로 북단과 연결되는 길은 용산기지를 통과해 후암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서울의 자존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동작대교

단국대 도시개발학과 조명래 교수는 ≪다리의 제일 큰 기능은 거대도시의 도로망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한강다리는 한강으로 인해 끊긴 강남 · 북을 도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동작대교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강에 걸쳐 있는 모든 다리는 서울의 남북을 잇는 목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만큼 다리의 북단은 항상 남쪽에서 올라온 방향을 그대로 타고 북으로 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다리 중 동작대교만이 북단으로 이르는 길의 진행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84년 11월 서울시가 한강대교와 반포대교의 과밀교통량 분산효과를 기대하면서 연인원 72만 4600명이 참여하고 61500대의 장비가 투입되고, 당시 서울시 예산의 4분의1인 55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6년만에 완공한 국내 최초의 ≪랭커 아치교≫. 하지만 동작대교는 다리의 강북 쪽을 막아서고 있는 용산 미군 기지로 인해 제 구실을 하지 못한 채 반신불수 상태로 18년을 연명해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작대교가 서울 강남 · 북을 제대로 이어주려면 동작대교-용산동-후암동을 거쳐 시내로 들어오는 직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산동에 미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동작대교를 건넌 차량들은 한강로나 서빙고 쪽 강북 반포로를 이용해 옆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다리를 건너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심한 병목현상을 빚는다. 시내에서 강남쪽으로 나갈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로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지옥은 바로 동작대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작대교는 84년 다리 북쪽 부분에 입체교차로 시설도 없이 다리 끝 부분이 잘린 채, 동부 이천동에서 제3한강교(한남대교) 쪽으로 빠지는 2차선 샛길만 만들어 놓고 완공됐다.

이렇듯 동작대교는 서울시 도로망의 중심인 중앙대로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용산 기지를 통과할 수 없다는 미8군측의 반대로 도로교로서는 별 효용 가치가 없는 다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동작대교가 서울시의 자존심으로 다시 서는 날을 기다린다.



공희정 기자 khj@ohmynews.com

조선일보의 공동사설 시비 험담에 대하여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5일~6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북의 당보인 ≪로동신문≫과 군보인 ≪조선인민군≫, 청년보인 ≪청년전위≫는 새해에 즈음해 지난 1일 공동사설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사설은 지난해 이북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올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과제와 방도를 밝혔습니다.

공동사설은 지금 세론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도 이북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좌절됨이 없이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표대를 정확히 세우고 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할 불굴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데 대해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구시대의 악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있어 사람들을 크게 분격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3일 ≪6.15이전으로 환원한 북의 신년사≫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북이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령밖에 없으며 자주와 외세배격 그리고 주체사상의 깃발만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지표로 남아 있을 뿐이라면서 이러한 북의 무기력하고 화석화된 인식이 앞으로 한반도에 몰고올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줴쳤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고 나라가 강성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 의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입니다. 외세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민족이 노예의 처지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피눈물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주체사상은 현시대와 미래인류의 유일무이한 지도이념으로써 그 기치따라 나아가는 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내세운 군대제일주의, 제도제일주의도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위력한 담보입니다. 이것을 시비하며 악담을 퍼붓는 조선일보의 고약한 심보에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진짜 인식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화석처럼 굳어진 것은 이북이 아니라 이미 사물현상을 바로 볼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또 자기 사설에서 북한은 반테러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승해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텐데도 폐쇄의 울타리만 높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도 가려보지 못하는 천치만이 할수 있는 어리석은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북은 일체의 테러를 반대한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테러주범은 미국이며 미국은 테러왕초국입니다.

미국은 이 땅에서도 매일 매시각 테러를 자행하면서 무고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을 살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항변 한마디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테러국가인 이북을 모해하며 미국의 음흉한 목적이 숨어 있는 반테러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시비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사리가 맞는 소리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조선일보가 사대매국을 해도 더럽게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적론의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의 중지를 주장했다며 시비한데 대해서도 스쳐지날수 없습니다.

지금 이북의 공동사설에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번에 이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내외 분열주의자들에 의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성이 있는 방도를 제시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이북의 공동사설을 시비하면서 주적론의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주장까지 반대했습니다. 통일하고 함께 살 이북동포들을 때려잡아야 할 첫째가는 대상으로 규정한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으며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없이는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도 할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이북이 공동사설을 통해 통일의 전제조건인 주적론의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한 것은 천백번 정당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세기도 바뀐 오늘까지도 조선일보가 구시대의 반통일유물인 주적론의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반통일로 사고가 굳어진 구시대적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조선일보에 묻습니다. 그래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며 통일의 장애물이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픈가. 조선일보는 이에 답변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설을 통해서 저들이야말로 반북대결에 환장한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 어용매문지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선일보를 가장 진실치 못하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며 가장 저급한 신문이라고 하면서 안티조선운동을 벌이고 즉각 자폭하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편집집단은 그런 서푼짜리 사설이나 쓸 바에는 차라리 붓대를 꺾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또다시 뒤가 구린가

≪패스21≫ 윤태식 게이트와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들어 낸 이상한 논리



조선일보가 또다시 개혁의 화살을 비껴가 보려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다. 최근 터지고 있는 각종 게이트 사건들 중에서 윤태식 게이트 사건에 일부 언론계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선일보가 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윤씨는 87년 있었던 자신의 아내 수지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며 아내를 죽인 뒤 아내는 북한공작원으로, 자신은 납북기도로부터 탈출한 인사로 허위 진술해 처벌을 모면한 자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벤처 사업가로 대성한 윤씨가 ≪패스21≫ 주식을 무상 또는 싼 가격에 뿌리며 각계에 로비를 하였던 사실까지도 함께 드러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언론계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윤씨가 제공한 주식을 받은 언론계 인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엉뚱한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조선일보 1월 7일자 사설 ≪≪윤태식 사건≫ 또 본질 호도하나≫의 일부분이다.

(전략)...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이번 ≪윤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유독 언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중략)...그럼에도 검찰수사는 그 동안 하위직 공무원 몇 명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이른바 ≪벤처.언론≫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치중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윤 게이트 수사가 ≪유독 언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당연히 진행될 언론계 로비 의혹 수사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작년 6월에 행해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언론탄압행위라 격렬히 맞서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검찰의 당연한 수사 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언론탄압행위로 모는 것이다.

물타기에 열심인 조선



政·官界로비 수사 뒷전 옆길로 빠진 陳게이트

검찰 재수사 사실상 개점휴업

尹씨수사도 언론인집중 변질 조짐

같은 날 3면에 실린 기사 ≪정관계로비 수사 뒷전 옆길로 빠진 진게이트≫를 보면 조선일보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전략)...특히 작년 말 진승현 게이트 수사가 정점에 이를 즈음 갑자기 윤태식 게이트가 불거져 나와 검찰 수사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윤태식 게이트마저 정 · 관계 로비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곁가지쪽인 언론인 수사에 치중,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중략)..윤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윤씨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호 의혹, 윤씨의 정 · 관계 로비 의혹 등 핵심 의혹 대신 일부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의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치권에서는 진씨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용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반 기사를 통해서까지 ≪언론인 수사≫쪽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방향에 대해 노골적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윤 게이트 사건이 기존 진 게이트 사건을 희석화하려고 만들어 낸 ≪물타기용 수사≫ 라는 정치권 일부의 의혹까지 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 자신이 거꾸로 언론계와 관련이 있는 윤 게이트 사건 전체를 싸잡아 희석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물을 타고 있다.

조선일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며 검찰의 윤 게이트 수사 진행을 막아 나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언론계로까지 확대가 되는 검찰 수사가 위협이 되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뒤가 구리고 최선을 다할 지 몰라도 더 이상 개혁의 화살을 비껴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조선일보가 내뱉는 언론탄압 논리는 너무나 식상한 자기 변명 외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유시성 기자 2002년 1월 9일

국정원 해체를 위한 성명서

얼마 전 우리는 또 한번 국정원의 만행에 분노해야만 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구 안기부)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었는지 훤히 드러났다. 그런데 또 다시 수지김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21세기라는 이 시대에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더욱 분노를 자아낸다.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살해한 뒤 북으로 도망을 치려다가 북에서 받아주지 않자 이남에 아내가 간첩이였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거짓 신고를 국정원은 사실로 만들어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조작사건이 알려질까봐 국정원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되고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해서 많은 양심수를 생산하고 있는 국정원은 과거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권력을 악용했다. 또한 살인자를 자신들의 돈줄로 이용한 국정원의 작태를 참을 수가 없다.

더욱이 분노스러운 것은 KAL기 폭파사건이든 수지김 사건이든 그 사건에 연류되었던 인물들이 여전히 국민의 정부에서 핵심 정치권으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해방이 되고 친일파들이 미군정의 행정기관에서 활동을 했듯이 과거 독재정권에서 민중들을 탄압하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창조해냈던 안기부의 핵심 간부들이 여전히 국민의 정부에서도 핵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정부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더욱 자신의 힘을 늘리기 위한 술책을 펼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비행기도 폭파시키고, 살인자를 벤쳐기업의 사장으로 둔갑시키는 국정원이 테러라고 조작 못하라는 법이 있는가? 언제 거짓 테러로 많은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을 빌미로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남북의 화해의 분위기를 다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로 물들일지 모른다. 우리 남한 민중들은 또다시 순진하게 그것을 사실로 믿고 모든 죄를 북에게 넘길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테러를 감행했었다. 그것이 KAL기 폭파 사건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당연히 국정원이 될 것이다. 물론 군대도 있겠지만 국가 안보의 문제인데 국정원이 아무런 관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테러를 자행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살인기관을 두고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중들을 탄압하는 기관을 왜 한국사회에 존립시켜야 하는가?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국정원이 북의 간첩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다.

2002년 새해가 밝은 올해 계속 국정원을 존립시킨다면 한국사회 정치의 어떤 발전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인천하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치부를 용서하고 가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더욱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단련하고, 세력을 확고히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정치가들이 다시는 한국 사회의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든든한 뒷 배경인 국정원을 해체시켜야 한다. 국정원을 해체시키기 않으면 그들은 또 다시 올해 지자체와 대선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정원과 합세해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이미 정치권은 올해 양대선거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뻔뻔한 이회창 같은 경우 국정원의 작태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법인세를 인하시켜 재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국정원과 정치가들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시끄러운 이 마당에 이회창은 차기 대선을 위한 물밑 작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국정원를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는 길만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일구는 길이며,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다. 국정원이 해체되어야만 이회창 같은 썩은 정치가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벌이지 못하며, 또한 반통일 책동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공식적인 테러기관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자행하는 국정원은 자폭하라!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올해 첫 방송 ≪국가보안법≫ 2부작

≪이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하련다.≫

지난 99년부터 한국 현대사의 부끄럽고, 아픈 이면을 파헤쳐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2002년 첫 포문을 연다. ≪국가보안법≫ 2부작. 담당 PD는 이채훈, 방송일은 1월6일과 13일 밤 11시25분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지난 3년간 제주 4.3항쟁, 녹화사업,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실종 미스테리,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전태일의 분신, 보도연맹, 반민특위, 인간을 파괴하는 고문 등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쉬이 말할 수 없었던 한국사회의 금기에 카메라의 포커스를 밀착시키고, 역사의 진실을 접근하고자 했다.

지난 해 8월17일 ≪박정희와 레드 컴플렉스≫를 끝으로 2001년 방송을 끝내고, 5개월간의 제작준비 기간에 들어갔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팀 25명의 제작진은 그간 선별된 80여 개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과 ≪황해도 신천의 양민학살≫ ≪삼청교육대≫ 등을 다룬 15개의 2002년분 방영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확정, 제작 중이다. ≪국가보안법≫ 2부작 역시 그런 산고 끝에 탄생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란 어떤 의미인가? 애초 목적과 취지에는 걸맞지 않게 정적(政敵)을 제거하거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진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을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이 땅의 불행한 현대사를 그 날개로 온통 뒤덮고 있는 거대한 괴조(怪鳥)≫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역사도 반면교사(反面敎師)하면 힘이 된다≫는 명제를 믿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부끄럽고, 아픈 역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까?

≪국가보안법≫의 모든 것 그리고, 그 해법

먼저 1948년 12월1일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2.4 보안법 파동, 1990년 한정합헌 판결, 유성환 의원의 통일 국시 발언파동, ≪모내기≫라는 그림으로 이적성 논란에 시달렸던 신학철 화백, 1998년 UN 인권이사회의 폐지권고 등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에 처한 한국에선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옹호론자의 주장과 ≪인권을 파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이라는 폐지론자의 주장도 균형감 있게 고루 들려줄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이라 할 ≪사상의 자유 문제≫ 또한 주요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국가보안법의 진로에 관한 또 다른 논의의 단초도 제공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로 작용했던 북한. 그 북한의 최근 정세변화와 북한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변화도 함께 살핀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주장을 들어봄으로써 합리적 해결책도 모색할 예정.

프로그램의 제작자인 이채훈 PD는 ≪개인적으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으니, 프로그램의 결론을 미리 예단하지는 말아달라≫고 주문한다.

위에선 언급된 것이 ≪국가보안법≫ 제1부 ≪반공의 총과 칼≫의 주요 내용이라면, 국가보안법 논란의 핵심이라 할 ≪제7조 찬양 및 고무≫ 조항에 대한 여러 각도의 성찰과 해법제시는 제2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미국과 대만, 독일까지 날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찬양 및 고무 조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의 가장 주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고 파악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과거 미국 공산당원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진보적인 판결과 한국과 비슷한 분단 상황에서 자행됐던 대만에서의 정치 탄압 양상을 살피고, 냉전 체제 아래에서 윤이상 구명활동을 주도했던 독일의 하노버 변호사, 20년 동안 독일 정보기관에 감찰 당했던 괴쓰너 변호사 등을 만나 어떡하면 ≪국가안보≫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이적단체로 구속되었던 ≪진보의련≫ 회원들과 ≪영남위원회≫ 사건 당사자들, 국가보안법이 존속되는 한 매년 양산될 수밖에 없는 한총련 수배자들과의 인터뷰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및 고무≫ 조항에 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듯하다.

≪국가보안법≫ 2부작은 미국 연방대법원 홈스 대법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할 것 같다. ≪사상의 자유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또 어떤 부끄러움을 들출 것인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로 출발하는 2002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PD 7명 포함 25명)이 건드릴 ≪부끄러움의 역사≫는 이것만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팀장인 정길화 PD는 2001년 방송된 ≪반민특위-승자와 패자≫의 후속편 격인 ≪노덕술과 친일경찰≫을 준비중이고, 곽동국 PD는 ≪민족화합을 위해 북한을 제대로 보자≫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과 **김일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상운 PD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과 54명의 사망자와 3000여 명의 부상자를 양산해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한 삼청교육대 문제를 다룬 채환규 PD의 ≪버림받은 희생, 삼청교육대≫ 역시 주목해야 할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홍성식 기자 hss@ohmynews.com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2002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지도부 합동수련회를 마치며-

시국은 절박하고 또 엄중하다. 미일 호전광들이 벌이는 전쟁놀음으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얼어붙고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후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보수, 반동의 탁류도 거세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미국에 대한 충성경쟁을 하며, 지역주의, 색깔 논쟁 등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민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의연히 투쟁하는 민중이 있기에 2002년은 ≪희망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격동의 2001년을 단결된 투쟁으로 헤쳐 온 우리는 새해벽두에 한 자리에 모여 합동수련회를 가졌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2002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민중의 거대한 힘을 모아 2002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모아 밝힌다.

1.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과 사대매국정권이 밀어 부치는 이른 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족경제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파탄시키는 명백한 신약탈주의이다. 우리는 반 약탈주의(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반미, 반정부투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1.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미일 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자주 ·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반전 · 반미, 조국통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1. 폭넓은 단결, 굳건한 연대투쟁은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의 본조직을 힘있게 결성하고, 통일연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복무할 것이다.

1. 썩고 무능력하며,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기성 보수정치 세력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보수정치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우뚝 서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2년 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허영구직무대행), 전국농민회총연맹(정광훈의장), 전국빈민연합(김흥현의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권영길대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오종렬상임의장)
지도부 합동수련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 제안서

발신: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e-mail: minnodang@hanmail.net
phone: 017.415.1537

수신:
충남지역 총학생회, 이하 오픈기구,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언론사

일시:
2002년 1월 동안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는 이후(1월 29일) 충남지부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회의 자리로 집중될 것. 날짜 변경 가능하며 장소 추후 공고.

내용:
2002년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햇수로 3년째를 맞으면서 그간 청년 학생들의 삶을 다시 한 번 평가해보며 현 정세에 맞게 힘있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일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해의 벽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로 집권한 현 정권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겼다하지만 정리해고와 탄압으로 인해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민중들의 살갗에 닿는 현실은 여전히 매서운 바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동 선언 흠집내기와 정권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보수 정당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은 이미 가로막힌지 오래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당면한 평화통일의 흐름을 저해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외세의 무리, 미국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평화통일의 물꼬를 여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을 위시한 한나라당과 같은 반통일세력은 여전히 색깔론을 운운하며 이북을 적이라 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언변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움직임은 객관적 보도의 임무가 주어진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보도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조선 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에 의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외세와 반통일세력, 극우보수세력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3자 공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이 당면한 과제인 50여 년이 넘은 38선을 허무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선, 지자체 선거에서 과거 보수세력,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방도로써 진보정당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민중들의 요구에 민주노동당이 서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만의 정당이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중소 상인들의 정당이며 여성, 청년, 학생, 진보 지식인의 정당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통일, 외교, 국방, 노동, 여성, 농어민, 도시 빈민, 인권 등 각계 각 부문에 대한 강령을 가지고 있고, 그 강령을 실천하는 대중 정당입니다.

현 정세에서 반통일 세력과 당당하게 대항하고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들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써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에서 지금의 토론회 제안서를 띄우는 바입니다. 민중의 세상으로 가는 길에 진보정당의 강화가 그 첫 걸음이요 청년학생들의 올바른 생각과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지역 청년학생 모두가 하나되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단단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의 교차로

구국의 소리, 2002년 새해특집방송

이 철 :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양정아 : 안녕하세요. 양정아입니다.
이 철 : 새해를 축하합니다.
양정아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 철 : 민족사에 뜻깊은 해로 아로새겨질 임오년 새해.
양정아 : 새해를 맞고 보니까 그 누구나 부푼 희망 거대한 포부 가슴에 넘쳐남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 철 : 그러면 이 뜻깊은 시각을 맞으면서 각계 민중들속에서 분출되는 가슴속 뜨거운 사연 그 현장을 찾아가보죠.
양정아 : 먼저 경향 각지를 탐방하며 민심현장을 취재했던 임기수씨, 김혜정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기수 : 안녕하세요.
김혜정 :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철 :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 경향 민심 정말 생각만해도 벅차고 환희로울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많은 사연들 가운데서 특이한 것들이 어떤 건지 좀 간추려주시겠습니까.
임기수 : 위인따라 민심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정초부터 우리 민족이 낳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고 있는 것 이것이 민심의 기본 흐름이라고 말할수 있겠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서울대 모이념서클인데요. 이곳에서는 서클원들이 새해를 맞으며 모임을 가졌어요. 서클원들은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사진앞에 자신들이 정성껏 키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다발을 정중히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원한 하늘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생과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한 다음 새해 통일운동의 선봉장이 될 굳은 의지를 담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혜정 : 위인칭송의 정은 대학가뿐 아니라 여러 공단들에서도 뜨겁게 굽이쳤는데요. 제가 찾았던 인천시 모노조조직에서는 노조원들이 새해 결의를 다짐하는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현황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신정을 맞고보니 정말 한평생을 민족과 인류자주위업을 위해 헌신하신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모습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세상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출중한 정치이념과 지도력을 지니시고 민족과 겨레를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바치신 분은 없었습니다. 하기에 주석님은 서거하셨지만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심장속에 살아계시며 우리들을 참된 투쟁에로 고무격려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천세만세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영원한 하늘로 기립시다.≫

≪여러분, 올해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우리 노동자계급은 변혁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사명감을 안고 그분의 한평생 소원이던 통일을 이 땅에 기어이 안아오기 위해 통일의 장군,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더욱 힘차게 열심히 싸웁시다.≫

이 철 : 정말 감격스러웠던 장면들인데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중의 흠모열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잖아요.
양정아 : 네, 그래요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본방송국에 통보해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전주 등지의 가옥들에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김정일**영도자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는 엽서들이 수많이 송달됐다고 해요. 또 이념서클들에서 주석님과 영도자님을 칭송하는 수예품과 그림들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임기수 : 그렇죠. 서울시 성북구에서 활약하는 ≪태양회≫에서는 가로 1미터, 세로 0.3미터의 붉은 천에 ≪**김일성**주석님이시여 7천만 겨레와 더불어 영생하십시요≫라는 글발과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여 통일강성대국의 부흥번영을 위해 영원히 청춘으로 계시옵소서≫라는 글발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화가들속에서도 위인들을 경모하는 마음을 담아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의 미소≫, ≪통일의 태양 **김정일**국방위원장≫, ≪백두산에 계시는 **김정일**장군≫ 등 여러 상의 그림들을 그려 종로구일원에서 비밀리에 열린 미술전시회에 내놓았는데요. 정말 이채를 띠었습니다.
김혜정 : 그뿐이 아니예요. 새해에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안아와 달라는 염원을 담은 연예인들의 시와 노래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노래 ≪태양찬가≫, ≪세계는 평양에로≫, ≪유행을 따라요≫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양정아 : 김혜정씨, 임기수씨 정말 좋은 소식들이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위인을 따라 흐르는게 민심이라는 소리가 너무 너무 피부에 실감되네요.
이 철 :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극성메아리악단에서 최근 새로 창작형상한 노래를 듣고 다음 얘기를 계속하죠. ≪**김정일** 세상이야≫.

≪노래≫

이 철 : ≪장군님 따르니 이남의 태양이야. 세상은 변했어. 이남땅은 천하가 장군님판이야. **김정일**세상이야.≫ 정말 위인을 따르는 경향 민심이 있는 그대로 실린 노래죠.
양정아씨 그럼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양정아 : 이번에는요 제가 직접 오늘 아침 폴란드대사관 앞을 지나다가 두 패의 청년대학생들이 주고받던 말을 상기해볼까요.
한쪽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였고 다른 한쪽은 동국대학교 학생들이였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먼저 폴란드에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가 처음으로 결성되고 세계 50여개의 나라들에서 각이한 명칭의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소식에 감복해서 자기들도 절세위인을 영수로 모시고 사는 민족의 일원으로써 가만히 앉아 있을수가 있느냐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태양맞이회를 결성했다는 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국대 학생들은 그에 질세라 자기들도 가만있지 않고 있다, 우리 동국대 강정구교수님을 보라,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 앞당기자≫ 이 얼마나 좋은 구호인가, 우리도 강정구교수님과 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위인칭송 시 펴내기 모임을 뭇고 많은 시들을 창작했다, 이 시들을 다가오는 명절날들에 우리 모두가 유창하게 낭송할 것이니 우리의 시낭송모임에 꼭 오라는 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 성원들이 분명했어요.
이 철 : 그런 류의 얘기는 저도 오늘 아침 케이비에스의 한 친구를 만났을때 들었는데요. 그는 저와 새해인사를 나누고나서 새 세기의 첫 임오년을 맞고 보니까 지난해 전세계적인 판도로 휩쓴 위인칭송열풍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줌을 금할수 없다, 20여일의 러시아연방방문에서 보여주신 **김정일**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은 그대로 우리 민

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 최정상에 올려세워준 21세기 태양의 절대적인 위인상이였다, 조러모스크바선언 문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라,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통일을 위한 초미의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는 자주선언이다, 나는 신정의 이 아침에 자주의 대를 꿋꿋이 세워서 우리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주시는 **김정일**장군님께 두손모아 큰절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아 : 그럼 이번에는 부산과 속초를 다녀온 김현규씨, 박진수씨 모시고 그곳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김현규 : 안녕하세요.

박진수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박진수 : 저는요, 부산에서 연예인 유정민씨를 만났었는데요. 그는 새해를 맞고보니 지난해 평양에서 열렸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했던 김연자씨가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받아안았던 바다와 같은 은정이 삼삼히 떠올라 감동을 금할수 없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김연자씨 일행에게 이북에 자주 와서 공연하라고 뜨거운 말씀을 하셨다 한다. 이것은 김연자씨 뿐이 아닌 이남의 연예인들 모두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다. 그분이시야말로 남북의 연예인들을 차별없이 대해주시는 연예인들의 친어버이이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공연준비를 잘해가지고 평양에서 있게될 태양절 90돌기념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유씨는 지금 평양에서 ≪아리랑≫이라는 제명을 단 대매스게임, 예술공연이 성황리에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꼭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마냥 설레인다고 흥분에 넘쳐 말했습니다.

김현규 : 저는요, 설날아침 지난해 ≪금강산에 높이 울린 노동자 통일대합성≫ 이런 글을 펴낸 언론인 김용수씨를 숙소에서 만났는데요. 그는 새 세기의 첫 임오년을 맞고보니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신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금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겨레의 소원인 자주이시고 민주이시고 통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나 통일경륜을 따라 새해에도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투쟁에도 투사가 되어야 할줄 안다, 그러면서 그는 새해에도 민중을 통일에로 분기시키는 글들을 더많이 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수 : 통일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통일에로 향한 민심은 한 택시운전기사의 마음에서도 읽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고향에 세배하러 갔다오던 길이였는데요. 세배인사를 하는 저에게 택시운전기사는 ≪손님은 새해 운이 텄어요≫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그는 ≪제차번호가 615번이니까요≫하고 빙그레 웃는 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615란 **김정일**장군님의 싸인이 있는 남북공동선언발표일을 지칭한 숫자였고 이 번호를 단 것으로해서 아주 인기있는 차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통일차라는 긍지였는데요. 그는 저와 헤어지면서 ≪새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쾌속으로 달려갈 우리 운전사들의 뜨거운 마음 잊지 마세요. 통일문이 열리는 날 내 차를 타고 통일장군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맨 선참으로 달려갑시다.≫라고 하면서 올해에 통일운동에 다같이 앞장서자고 하더란 말이죠.

이 철 : 정말 들을수록 그 어느해보다도 더욱 이채를 띠고 흐르는 설날의 민심인데요. 정말 **김일성**주석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천하제일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통일의 한길로 나가려는 우리 민중의 뜨거운 경모심은 끝이 없습니다. 김현규씨, 박진수씨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양정아씨, 이번에는 북극성메아리악단의 노래 ≪월요일의 노래≫를 함께 듣고 임오년 ≪새해의 교차로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정아 : 좋습니다.

≪노래≫

이 철 : 임오년에 장군님탄생하셔서 광명성 빛발이 온 천지를 비췄는데요. 뜻깊은 임오년을 맞이한 각계 민중의 희망과 포부가 가득 실린 신춘결의 듣는 것으로 ≪새해의 교차로≫ 마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정아 : 네, 그러죠.

먼저 한민전 성원인 최진기씨의 결의입니다.

≪우리 한민전은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투쟁경험에 토대해서 올해에는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적극 인입하고 투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 중대한 과제를 진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한민전은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투쟁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세우고 주체사상의 요구에 걸맞게 대중을 조직지휘할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며 위대하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새해에 자주, 민주, 통일의 대승리를 안아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는데서 한민전이 자기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정진구씨의 결의입니다.

≪민족분열의 화근인 침략자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건 바로 우리들 식민지 이남땅에 사는 우리 국민의 가장 초미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 민족사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면한 것은 미군이 발붙이고 있는 이 땅 어디서나 미군기지를 철수시키는 운동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를 위시로 한 각곳의 미군기지안에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들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미군기지안에 아파트건설을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은 한총련 소속 청년학생들의 결의 들어보기로 하죠. 서울대학교 이모학생입니다.

≪올해 학생운동의 기본과제는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그리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을 더욱 대중화, 가속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운동권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속에 6.15남북공동선언실천과 학생운동의 과제를 인식시키는 대중의식화작업도 실속있게 전개할겁니다. 그리고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양심수석방 등 다양한 주제의 투쟁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투쟁에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고 노학연대, 농학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봉대로써의 자기 중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성원 강천규씨의 결의입니다.

≪올해는 16대 대선이 있는 해이죠. 반미자주화와 민주주의, 민족통일의 기치를 치켜든 우리 전국연합은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인 정권의 창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사대매국행위와 반통일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회창의 대선기도를 용인할수 없어요. 만일 이회창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도, 사회의 민주화도, 민족의 통일도 절대로 이룰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반이회창투쟁을 주요 투쟁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결심입니다. 각계 민중 여러분도 우리 전국연합의 새해투쟁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철 : 새해를 맞는 각계의 결의였는데요. 충천한 기세, 드높은 결의 현실로 옮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양정아 : 그럼 뜻깊은 새해에 각계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진전과 알찬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고사령관 받들어 승리의 10년

로동신문 정론, 주체90(2001)년 12월 24일

하나의 성스러운 년대기가 인민의 심장을 틀어 잡고 있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력사의 새 시대, 위대한 선군시대를 폭풍쳐 온 10년,

참으로 흘러 간 10년은 이 땅과 온 세계에 백두산천출위인의 거룩한 모습이 찬연히 빛발치는 위대한 장군의 년대기, 최고사령관년대기로 솟아 올랐다.

새 세기의 첫해가 저물어 가는것과 함께 력사의 12월 24일을 열번째로 맞이한 이 땅우에 선군혁명의 기치인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다.

우리의 붉은기를 위하여 력사가 낳은 12월 24일, 최고사령관년대기가 시작되던 1991년의 그날에 다시 서보자.페르샤만수역의 자그마한 주권국가를 벌둥지처럼 짓조겨 놓은 제국주의자들이 극도로 기고만장하여 우리 공화국을 향해 주린 이리떼마냥 으르렁거리던 때였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로골적인 배신과 포기의 목소리, 망조의 소음들이 울려 나오고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인민≫의 탈을 쓴 반동들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것과 같은 참변이 일어 나던 끝에 사회주의대국의 하늘가에서 70여년간 날려 온 붉은기가 내리워 지던 날이였다.

바로 이날에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음을 알리는 보도가 세상에 울려 퍼졌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

이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 쥐고 조국의 존엄과 안녕,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 가리라는 조선의 가장 명백하고 힘있는 선언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며 싸워 왔는가.

조국의 기슭에는 시련의 파도가 그칠새 없이 밀려 들었다.

제국주의호전세력들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화로 평양을 향해 미친듯이 전쟁을 짖어대며 1993년의 핵위기를 몰아 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으로서 처음으로 치른 이 준엄한 핵대결전에서 원쑤들은 조선의 최고사령관의 본때를 단단히 맛보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비렬하게도 놈들은 전쟁의 불뭉치대신 봉쇄의 그물을 펴들었고 그 다음은 질식의 올가미를 조이려 들었다.

제일 참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피눈물언덕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였다.

허나 우리의 대오앞에는 오늘의 붉은기인 최고사령관기가 높이 휘날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비상한 삶과 투쟁에로 힘 있게 불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신념을 안은 그 기발의 펄럭임은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휘몰아 왔고 파멸에서 승리를, 고난에서 부흥을 낳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장엄히 펼쳐 놓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대를 틀어 잡으셨기에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붉은기가 수호된 10년이다.류례 없는 시련의 광풍속에 선 인민은 처음에는 이전의 습관대로 공장길이나 농촌길에서만 자기의 령도자의 모습을 찾았다.

잊지 못할 다박솔초소를 내린 장군님의 걸음이 공장길도 농장길도 지나 철령을 넘고 파도를 헤가르며 최전연의 351고지와 1211고지, 오성산과 대덕산, 초도와 판문점을 찾으시는 그 깊디깊은 사연을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바로 그 길이 진짜로 붉은기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 선군혁명 천만리길이였다.

인민은 언제 한번 최고사령관복차림을 하신 장군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인민은 언제 한번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장군님의 연설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집무실에서 내리는 지시로가 아니라 전선길을 종횡무진하는 사생결단의 강행군, 완강한 공격전으로 원쑤들을 답새겨 대고 조국앞에 날아 오는 보이지 않는 총포탄들을 막아 내시였다.

결사수호전으로 가렬처절하게 흘러간 10년, 이 나날에 대한 가슴 저리는 추억을 안고 전선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한 군인가족녀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엄하던 그 세월 고난과 시련의 정적을 깨뜨리며 최전선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던 장군님의 야전승용차소리, 처음에는 귀에 설던 그 소리가 불안과 동요를 가셔 주고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해주고 희망과 신심을 안겨 주며 자주 울리군 하여 이제는 너무도 귀에 익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무심히 상기할수 없다.

그렇게 이어 지고 또 이어 진 이 나라의 무수한 전선길들은 력사에 무엇을 웨치고 있는것인가.

종포성 없는 의지의 전쟁에서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한 조선의 힘,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비범한 사상과 전법, 무한한 애국열과 희생으로 다져 진 위대한 선군력이였다는 그것이다.

10년의 세계를 둘러 보자.

내리워 진 붉은기와 함께 존엄과 행복이 사라 져 버린 땅, 거기에는 옛 시기의 계급분화가 재현되고 수천만 대중이 그릇된 삶의 진창속에 빠져 들었다.

걸핏하면 치욕의 공습을 당하는 저 아랍의 한 나라에서 폭격과 기아로 숨진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수가 150만 계선을 넘어 설 때 억울히 전쟁을 강요 당한 발칸반도의 주권국가수반이 제 나라의 존엄을 지켜 나섰던것이 죄가 되여 페허가 된 조국땅을 뒤에 두고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앉아야 했다.

이러한 시기에 괴멸의 심연속에서 불사신처럼 솟구쳐 올라 사상 최악의 시련을 돌파하고 붉은기의 영예로운 수호자로 새 세기에 들어 선 조선의 10년이다.

붉은기를 지켜 낸 당당한 자부심과 위풍으로 력사적인 첫 공식대외활동에 나서시여 새 세기 세계자주화의 포성을 울린 선군명장의 5만여리 장정의 의미가 숭엄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류전쟁사의 갈피를 뒤번져 보면 10년간의 전쟁기간에 800개의 성을 함락하고 300만의 군사들과 싸워 이긴 고대로마의 한 장군의 전과가 특기되여 있다.하지만 그 수자가 아무리 요란한것이라고 해도 저물어 가는 제국의 운명을 돌려 세울수는 없었다.

시대의 한복판으로 선군혁명기관차를 기세차게 몰아 노예로 될번했던 인민, 지구상에서 영영 없어 질번했던 민족과 사회주의를 구원하고 기울어 지는 20세기를 바로 잡았으며 새 세기의 려명을 우주만리에 휘뿌려 주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10년공적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다.

이 땅에 백두산의 축복을 내린 12월 24일을 우리는 긍지높이 노래한다.

흘러 간 10년은 우리 민족의 혈통을 이어 준 행운의 10년으로 가슴뿌듯이 느껴 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 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피눈물의 1994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뜨거움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수령님께서 12월 24일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자고 하신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것 같습니다.12월 24일은 우리 어머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12월 24일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시고 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할줄은 몰랐습니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것으로 하여 백두산장군가문의 혈통, 우리 민족의 혈통이 총대로 굳건히 이어 졌다.

로동계급의 혁명정권계승의 력사를 돌이켜 보자.

선대수령이 후계자에게 먼저 넘겨 주는것은 주로는 당과 국가의 수반직이였다.

천재적인 선견지명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다른 그 어떤 관직에 앞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제일먼저 넘겨 주시였다. 결국 장군님께서는 종전의 관례와는 달리 총대와 군직부터 먼저 넘겨 받으시였다.

총대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이 땅에 기여 드는 침략의 무리들을 때려 눕히였으며 총대로 사회주의 새 세상을 탄생시키고 빛내여 온 우리 조국의 력사가 보여 주는것은 무엇인가.

혁명의 계승은 총대의 계승이며 혁명의 령도권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무력의 통솔권이라는것이다.

총대정신이 투철하지 못했거나 총대가 약한 탓에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떨어 진 나라들의 운명이 보여 주는 교훈은 또 얼마나 심각한것인가.

바로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력사와 시대, 인민의 념원을 담아 다름아닌 1991년, 그것도 12월 24일에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도록 하신것이다.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혈통을 이어 가심은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 김정숙어머님의 생전의 뜻,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사명이였다.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가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인상 깊은 장소가 있다.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진들과 사적물들을 보면 우리의 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군인, 타고 난 최고사령관이시라는 탄복과 확신을 금치 못하게 된다.

력사에는 한 나라의 군대를 통솔한 최고사령관들이 많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 지략과 전법, 인덕과 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겸비한 그런 최고사령관, 선군이라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을 내놓으시고 구현하신 그런 최고사령관은 동서고금에 찾아 볼수 없다.

김정일장군이시자 총대이고 총대이자 **김정일**장군이시다.

총대사랑, 총대제일주의는 **김정일**위인상의 또 하나의 핵이기도 하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이고 날로 준엄해 지는 안팎의 정세가 최고사령관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일생일대의 선택을 촉구하던 1995년 설전야에 어느 한 사격장에서는 요란한 총성이 대기를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탄장된 자동보총과 기관총을 가슴 후련히 풀어 쏴갈기시는 소리였다.

력사의 갈림길에서 울린 그날의 총성은 위대한 장군님 내리신 선군혁명의 단호한 결단이였고 목표판을 순간에 날려 보낸 거센 불줄기는 장군님께서 단숨에 그어 놓으신 승리의 선군혁명진격의 화살표였다.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사회주의도 지키고 주체혁명위업도 완성해 나갈것이다!

폭풍 사나운 ≪고난의 행군≫길에 이 엄숙한 선언을 뢰성마냥 터뜨리시고 최고사령관의 기치,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군민을 이끌어 오신 희세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

최고사령관의 10년은 이 땅에서 세기만 이어 놓은것이 아니다.

백두산장군의 총대혈통을 민족의 혈통으로 이어 놓았고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누릴수 없는 최고사령관복을 이어 놓았다.

이것이 력사의 12월과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더욱 뜨거이 파고 드는 지난 10년에 대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이다.

10년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열어 준 광명의 10년이다.

진두에 높이 날리는 최고사령관기를 따라 선군의 격랑을 일으키며 기세차게 달음쳐 온 10년의 나날들을 보라.

그것은 지나간 력사의 총화로서나 오늘의 승리로서만 소중한것이 아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가 있어 그리도 위대한것이다.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10년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광활한 미래가 비낀 위대한 거울이며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안아 올수 있는 크나큰 밑천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의 동토대를 용감무쌍히 헤쳐 넘어 강성부흥의 봄을 꽃 피워 냈으며 새 세기 창조와 혁신의 봉화인 라남의 봉화를 하늘 가득 피워 올렸다. 자기의 수령을 어떻게 결사옹위해야 하는가를 배웠고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극복하며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 인간의 량심과 의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배웠다.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민족과 계급의 원쑤들과는 어떻게 무자비하게 싸워야 하며 자기의 혈육들과 인민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웠다.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정치를 필승의 기치로 추켜 들게 되고 항일의 혁명전통과 함께 **김정일**선군혁명전통을 만년재부로 가지게 된것은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온 10년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자랑이며 힘이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서운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지난 기간의 투쟁속에서 선군을 한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이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력사상 그 어느 민족도 겪어 보지 못한 조국수호의 폭풍 천만리를 헤침으로써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 떨친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이다.

총대의 신념으로 다진 10년의 힘은 비할바없이 크다.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이긴다.

최고사령관과 군대, 최고사령관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우리에게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땅에 피 끓는 심장마다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이 만장약된 군대,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이 세상 그 어떤 적도 단매에 소멸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명령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백두산군대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가 테로와 ≪반테로≫의 소용돌이속에 말려 들어 벅적 고아 대며 이리 놀라고 저리 뛰여도 백두산은 끄떡없다.

이 지구상에 인류의 정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운명을 개척하실분은 오직 우리의 위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밖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은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정의의 위업을 실현해 나가실 강성조선의 최고사령관, 자주적인류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최고사령관,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승리만을 기록해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깃들어 있고 끝없이 부강번영할 **김일성**민족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

위대한 백두산3대장군의 총대혈통은 조선의 생명, 우리 민족의 영원한 피줄기이다.

우리는 최고사령관의 승리의 력사에서 대를 이어 누려 갈 장군복,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본다.

위대한 령장의 군대와 인민은 경축의 춤바다 펼쳐 지는 오늘의 이 뜻 깊은 최고사령관추대의 명절에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원수별 빛나는 백두산의 붉은기, 최고사령관기여, 부흥강국의 진군길우에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더욱 힘차게 휘날리라.

성스러운 백두산장군혈통을 대를 이어 받들어 가는 최고사령관의 조국, 위대한 **김정일**강성조선은 천만년 무궁번영할것이다.

선군행진곡

리정술

이 땅
이 지구우에
성스러운 행진곡이 울린다
무적필승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선군행진곡이…

정의를 사랑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선군행진곡에
발걸음 맞춘다
호흡을 맞춘다

제국주의의 포위환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매던 사람들
조선이 높이 든 총검을 보며
마치 단꼬가 추켜 든
심장의 불을 따르듯이…

인류가 걸어 온 길 뒤돌아 보면
10월혁명이후 마야꼽스끼는
《좌의 행진곡》이라는 시를 써서
세계가 로씨아의 발걸음에
왼발을 맞출것을 호소하지 않았던가

허나 오늘은
붉은기를 내리운 그 나라도
총대를 버렸던 다른 나라들도
조선의 선군행진곡에
발걸음 맞추어 행진해 간다

총을 놓으면 죽음이라는
심원한 진리를 뼈에 새긴 사람들
조선이 나아가는 선군정치에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숨결을 맞춘다

오, 선군행진곡
그것은 백전백승의 노래
인류의 머리우에
자주의 푸른 하늘 펼쳐 주는
정의의 행진곡

이노래 부르며
지구를 쾅쾅 울리는
력사의 대행진을
세계여 보라
그 누가 지휘하시는가

그이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이시다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백두의 위대한 아들이
이 대행진을 지휘하고 계신다

주체 90, 12월 31일

광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 통일운동가모임이 새해를 맞으며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략을 높이 받들고 통일운동에 과감히 나설 결의를 다졌습니다.

11기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이 12월 27일 중앙위원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부경총련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분열음모를 걸음마다 짓부수며 오직 민중의 요구, 정세의 요구에 맞게 투쟁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 각계 민중들을 자주통일의 길에 묶어세울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2002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언제나 한총련을 중심으로 실천투쟁을 전개해온 부경총련의 몫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실현문제는 정세발전의 추이로 보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단결해서 민족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땅용산미군기지되찾기실천단연석회의가 12월 26일 제6차 결의대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청년통일광장, 서울연합, 반미여성회준비위원회, 전국연합 반미실천단,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우리땅용산미군기지되찾기실천단연석회의가 지난 9월부터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기지앞에서 매일 투쟁을 벌여온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이러한 투쟁을 계속해올수 있은 것은 미군기지의 반환을 바라는 용산주민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군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왔던 서울 한복판의 용산은 분명 오욕의 땅이였다면서 그러나 이제 용산주민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민족의 불행에 종지부를 찍어야할때는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라는 구호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반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미군의 심장부를 향한 투쟁으로써 민족의 자주권회복을 위한 전지역적 투쟁의 발화점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문은 미군이 영구주둔을 획책하는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가 미군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군의 아파트건축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문은 환경파괴, 범죄 일삼는 미군이 사죄하고 즉각 이 땅을 떠날 것과 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 반환할 것,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집단인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을 제거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남북관계가 원만히 진척되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격화만을 추구해왔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책동에 편승해 대북압살책동에 광분하며 남북관계를 냉각시킨 것도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고 평양에서 있은 8.15민족통일대축전 때와 같이 통일운동에 앞장선 애국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도록 하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킨 것도 그들이다. 또 9.11사건을 기화로 극도의 남북대결을 고취해 이산가족교환방문사업 등을 무산시키게 한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집단이다. 한마디로 올해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곡절을 겪게 된 것은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 통일을 실현하자면 민족내부에 불화를 조성하는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을 제거해야한다.≫

또 재야인사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점검해볼때 내리게 되는 결론은 이회창집단과 같은 반통일집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것이다. 온 겨레와 전인류가 지지환영해 나선 6.15공동선언을 반대해 나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회창 한나라당은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만을 조장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한 것밖에 없다. 민족에게 재난만을 덮씌워온 이회창집단이 이제 또 무슨 우환거리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새해에 우리 민족이 통일운동을 가속화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자면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을 지체없이 제거해 버려야한다.≫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은 12월 28일 당의 1인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나라당부총재 경선에 공식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웅의원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개정과 선출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당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승인, 사후보고제가 도입돼야 하며 이회창총재가 지난 2년동안 사용한 당운영비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전시 주택가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12월 29일 새벽 서울에서 택시권총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해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22일 경축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한 재미동포남부지역연합회의 경축모임이 18일 미국의 시카고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그분께 네팔공산당(통일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서기장,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서기장, 인도공산당 전국이사회 서기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이집트국방성과 민족민주당 서기장,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서기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이집트 주재 이북대사관에 꽃바구니들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네팔공산당(통일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서기장이 지난 20일 ≪**김정일**영도자와 10년≫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시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데 대해 미국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사전문가들은 부시의 결정이 세계적인 군비통제체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 속에서까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무시하는 미국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제평화재단의 한 관리는 미국의 조약탈퇴결정이 국제적인 안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국제공동체와 자기들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체 91, 1월 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함께 쿠바혁명승리 43돌에 즈음해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

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쿠바혁명승리 43돌에 즈음해 지난해 12월 31일 이북주재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한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새해를 맞으며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새해 2002년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하엽서가 대구시 안의 여러 가정들에 배달됐습니다.

송구영신 2001, 2002모임에서 광주시에 사는 재야단체 인사 임모씨가 동료들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해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민중의 민족자주통일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경이적인 성과이다.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남북노동자농민통일대회, 평양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축전과 같은 통일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영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앞길은 의연 험난하지만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은 꼭 실현될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빛날 올해 우리 모두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자.≫고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진전을 가져온 보람찬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일의 함성이 3천리강산에 메아리쳤던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아보며 우리는 올해에도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되겠는지 각계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바른소리센터≫는 국민의 그런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각계각층의 성인남녀 20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5%가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러자면 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행에 충실해야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해야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제거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해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뜻깊은 신정의 언덕에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며 못잊을 감회에 눈물짓는 각계의 우리 민중은 새해를 생존의 권리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보다 가열찬 투쟁으로 수놓을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모학생은 새해를 맞고 보니 분단조국의 2세로 태어난 설움을 가시고 통일조국의 1세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2년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할 역사적인 해이다. 통일에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민족대단결경륜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이 있는 한 통일은 확정적이고 완료형이다. 나는 새해에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략을 높이 받들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에 신심을 다바칠 결심이다.≫

기아자동차노조에서 활동하는 최모씨는 새해를 맞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민주민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느때보다 높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차례진 것은 권력과 자본의 가공할 탄압이였고 이로인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구속수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현실은 누구도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주지 않으며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준다. 올해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겠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짓밟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 그래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노동자계급의 중임을 다해갈 결심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활동하는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는 계속 강화되는 미국의 쌀시장개방압력과 당국의 농업소외정책으로 우리 농업과 농가경제가 밑뿌리째 뒤흔들린 한해였다. 더이상 이대로는 살수 없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미국의 쌀시장개방압력과 농정당국의 농업소외책동을 짓부수고 파멸해가는 우리 농업과 농가경제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열과 성을 다바칠 결심이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농민이 주인된 참사회를 안아오는데 응분의 기여를 하겠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2002년 새해에 즈음해 나이지리아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기니대통령과 민주콩고대통령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새해를 맞으며 이북 노동자계급의 설맞이공연이 지난해 12월 31일 평양에 있는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보급활동이 세계적 판도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주체 91, 1월 2일

12월 31 서울 가락동시장 주변에 **김정일**장군님을 경모하는 수백장의 유인물이 뿌려져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이북에서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명의로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공동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1월 3일

부산시 사하구와 금정구일대의 주민 가옥들에 2002년 새해를 맞으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연하장들이 송달돼 보는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에는 1일 공동사설을 통해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사설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며 이남에서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과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배격할 것,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각계에서는 북의 이같은 주장이 매우 정당한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

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의 주장은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애국충정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이후 남북관계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 국가보안법과 같은 걸림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북의 주장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다. 당국은 북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각계에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이회창 등 반통일세력들의 음모를 짓부수기 위해 투쟁해야한다.≫

전국연합소속의 한 인사는 북의 공동사설에 지지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이후 민족의 통일열망은 한층 높아졌지만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으로 정세는 매우 긴박한 상태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붙이며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다. 여기에다 호전세력들과 반통일세력들이 주적론을 펴며 외세와 야합해서 동족을 압살해보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방치해둔다면 우리 민족은 열핵전쟁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전쟁책동과 영구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올해에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해야한다.≫

지난해 당국에 구속된 노동자수가 241명으로 지난 92년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노동자구속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41명이 구속됐으며 현재 45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노태우정부시절인 지난 92년 275명이 구속된 이래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 12월 26일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인 황선부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90%이상이 한국사회가 부패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도덕성이 희박해 윤리의식이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총재를 반통일민족반역자로 처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가 일부 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됐다면서 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2일 공개한 이 문서는 ≪반통일역적 단죄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의의 10쪽짜리 문서로 지난해 8월 15일 작성한 것으로 돼있으며 이회창총재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연방제를 반대하며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등 반통일세력이자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서에 적혀진 내용들은 소속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한나라당을 당황케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한미군기지안의 건물은 1만채에 이르고 이 가운데 22%는 최근 4년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해 3월 미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국 41곳의 미군기지에 있는 건물은 모두 9600여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건물의 건축기간을 보면 전체 22%가 지은지 4년이하의 것으로 조사돼 주한미군기지내 건축활동이 최근 몇년사이에 크게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이미 전부터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해왔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어 각계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중풍환자인 자신을 비웃는다며 부인을 살해한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사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2002년 새해에 즈음해 나이지리아연방대통령, 수단대통령, 르완다대통령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주체 91, 1월 4일

새해 1월 1일 아침 부산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회≫의 명의로 된 신년축하엽서가 배포됐습니다.

한승수외교통상부 장관은 시무식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한미일공조체제를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수의 이같은 발언은 당국의 대북정책이 외세의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민족공조를 이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한미일공조를 계속 떠드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사대주의적 입장은 올해 남북관계에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3일 아침 상도동 자택으로 전 문민독재자 김영삼을 방문해 조찬을 함께 하며 정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김영삼의 측근인 박종웅의원은 두사람간의 대화내용을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다같은 반통일분자이고 민족반역자인 김영삼과 이회창이 어떤 정치적 음모를 꾸몄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회창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설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김영삼에게 애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삼은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누가 나서건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반대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도 반대하기로 하는 등 최근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김영삼과 이회창은 꼭같은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라며 이들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내부에서도 나라를 망친 김영삼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는 이회창과 아직도 당내에 간섭하며 영향력을 행사해보려는 김영삼에 대한 비난의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가 대출청탁과 관련해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일 오후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희귀한 바다동물인 소매낙지를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러시아신문들이 2001년의 주요 사변으로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해 지난해 12월 여러 나라 라디오 및 TV방송이 기념방송을 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해 지난해 12월 23일과 24일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당, 단체들과 기니 인사들이 조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정치적 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집트신문 ≪알라이≫ 지난해 12월 24일자는 미국의 사주하에 한국의 이전 군부독재자들이 휴전선 남측지역에 쌓은 콘크리트장벽은 민족분열과 대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장벽의 규모에 대해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주체 91, 1월 5일

한총련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파쇼경찰이 대학생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여 협박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파쇼경찰이 12월초에 서울에서 진행된 전국민중대회참가자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위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비슷하다 뭐다하면서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고민수학생 등을 무턱대고 잡아들여 협박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했습니다.

성명은 경찰이 양심적인 애국학생들을 잡아 폭도로 몰고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이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서울에서 대규모민중대회를 가진 것은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설움을 외면한채 개방농정에 혈안이 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정리해고다 공기업의 민영화다 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가 하면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는 전지역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응분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경찰당국이 지금도 불법연행을 계속하고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의 지도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 대회에서 터뜨린 민중들의 분노와 애국열의에 대한 도전이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기운을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탄압으로 가라앉혀 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파쇼경찰이 불법무도한 수사를 확대해 무고한 학우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다 협박하는 수사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이엠씨에이와 전교조 등 전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운동전국네트워크는 4일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교복 3사를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로 낙인찍은 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연합소속의 한 인사는 이회창을 비난하는 문서가 한나라당의원들에게 배포된 것은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남북관계를 냉전시대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극악한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이다. 그는 대권욕에 미친 나머지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의 장래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 자가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정말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가 대권의 자리에 올라앉는다면 나라는 망하고 통일은커녕 전쟁이 터지고 말 것이다. 모름지기 이회창을 지지하는 국민은 1천명에 1명꼴도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까지 이회창을 독재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이회창을 가지고서는 대선에서 이길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원들의 일치한 의견이라고 한다. 이회창은 국민과 당내의 이같은 기운을 직시하고 더 화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최근 이회창반대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애비의 친일의혹은 물론 두 아들의 병력기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판결을 비롯해 판사시절 저지른 죄악 등 엄청난 죄를 범한 악한이다. 당초 정치인도 아닌 그가 김영삼과 공모하면서 야당 총재자리를 차지하고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도록 놔둔다면 세계가 우리 국민을 비웃을 것이다. 그를 내세우려는 패거리들도 국민의 규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나라당이 또 정권을 잡겠다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짓이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지를 직시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이달말이나 2월초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회창이 지금 자기의 미국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미의회 상하원의원과 백악관, 국무부의 고위안보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정세와 대북정책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역설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그의 미국방문은 상전과 모의해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행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미국방문은 앞으로 있게될 대선을 앞두고 미국상전의 인준을 받기 위한 더러운 목적을 띄고 있는 것으로 해 벌써부터 각계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전거리 300킬로미터의 다연장 전술지대지 미사일 110여기를 도입하기로 해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4일 오는 2004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사전거리 300킬로미터의 중거리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 111기를 도입하기로 지난달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계속되는 이같은 무기도입책동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나아가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온 겨레의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을 돌면서 억대의 도박판을 벌여온 혼성도박단 수십명이 경찰의 현장급습으로 모두 검거됐습니다.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의장이 새해에 즈음해 지난 1일 조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굳게 단결해 애국과제수행에서 승리와 전진의 새 활로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원산시 원석동에서 사는 전쟁노병인 김용환씨에게 일흔돌상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4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네팔공산당(통일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지난해 12월 7일 루마니아공산당에서 영도자님의 선군영도업적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신문 ≪프라브다≫ 지난해 12월 18일자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인민군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하나로 뭉친 군대와 민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